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가뭄엔 대비, 한인 축제엔 되서리

모처럼의 비, 3월부터 준비한 한인회 축제 꿈 날려
축제는 사라지고 한국의 날 기념식에 그나마 만족
최초 공립공원서 한인축제가 계속되는 시발점 삼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내 최초의 공립 공원이인 보스톤 커먼에서 열린 한국축제가 우천관계로 2시 30분 쯤 조기 종료됐다. 한인들의 문화 축제를 즐긴다는 상당수 한인들의 설레임은 축제 전날부터 끊임 없이 내린 찬비에 젖어버렸다.

지난 3월부터 한인회 관계자들이 보스톤 시청을 수차례 드나들며 보스톤 시의 까다로운 각종 허가를 따내며 계획했던 축제는 그나마 '한국의 날' 기념식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다. 당초 예정됐던 많은 태권도 시범도 추운 날씨와 굶은 비에 축소됐다. 예정됐던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12시에 예정됐던 한국의 날 기념식은 굶은 비에도 끈기있게 진행됐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몇가지 행사가 취소되고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모여 아쉬움은 있지만 보스톤에서 한국의 날을 기념하는 대형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싶다" 고 말했다. 김회장은 "가뭄에 대비하며 한국의



당초 예정됐던 많은 태권도 시범도 추운 날씨와 굶은 비에 축소됐다. 예정됐던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사진: 박진영 한인회 편집실장)

날을 축복하는 비"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았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은 "행사 가 매년 발전하고 보스톤의 >>2면으로 계속

세력 약화된 허리케인 매튜 뉴잉글랜드 지방 영향 안줄 듯

6일 현재 허리케인 세력이 4급으로 다시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불과 하루전만해도 4급 허리케인으로 아이티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매튜가 세력이 3급으로 약화되었다 6일 현재 다시 4급으로 강해지며 동북쪽으로 움직이며 바하마를 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재난 관리청에 따르면 이 같은 허리케인 매튜의 이동경로는 4일 예보됐던 경로보다 훨씬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뉴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대한 위협은 일단 감소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파도와 립 커렌트 등의 위협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10월 5일 현재 허리케인 매튜는 향후 며칠간 미국 남동부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허리케인의 경로는 언제든지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 영향이 미치는 범위, 규모, 강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난관리본부의 보도다.

허리케인 매튜의 이번 진로 방향을 두고 미국측의 기상 모델인 북미 메소스케일 예측 시스템(NAM)은 플로리다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850
델타 항공 (디트로이트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850.00는 델타 항공(디트로이트 경유) 요금입니다.
2016년 12월 7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10월 11일까지 발권하셔야 합니다.
항공료는 예약상황, 항공사 사정 등에 의해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양항공권 전문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Friess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naj@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English Learn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9까지 선택가능한

FDart 학문명예 뒤져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보스톤 최초의 한인 축제 우천관계로 예정시간보다 조기 종료

▶▶1면에 이어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고 "향후 임기가 마감되더라도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 행사에 아무 대가 없이 전미태권도 교육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보스톤 한인사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축하하며 "민간외교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 앞장 서 주는 한인회와 한인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고 축하했다.

기념식 후에는 전기 음향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일부 공연이 갑작 사고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다. 다만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은 일부만 그대로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 진행된 케이팝 경연대회에서는 미국인들이 한국가요를 멋지게 불러 한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미자 한인회 수석 부회장 겸 한국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은 다음 한국축제에는 좀 더 체계화된 K-POP경연대회를 개최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비록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 그리고 준비를 도왔던 여러 한인들의 노력은 최선을 다

했지만 결국 "행사를 보스톤 커먼에서 했다 는 점" 이외에는 축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 10월 1일 토요일 강우예보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로 인해 축제 참가를 계획했던 한인들의 상당수는 참가를 포기했다. 또한 보스톤 커먼 및 보스톤 가든의 일반 미국인들의 수도 평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후 2시계 참가했던 한 한인 여성은 한인은 "아주 적은 수의 천막과 한인 관계자들만 보고 놀랐다" 고 밝혔다. 3시에 참가한 한인은 아무런 축제 흔적을 찾지 못했고 한인회에서 대여한 이동식 화장실과 커다란 쓰레기 덩어리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인회 남진병 사무총장은 "한인회 측에서도 충분히 우천에 대해 논의했지만 렌트한 모든 장비를 다시 돈을 들여 렌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참가할 공연팀의 모든 일정도 재조정됐어야 했다" 고 행사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답했다. 또한 김경원 회장은 "한 번만 할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진행하자고 제안해 임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행사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한인 김 씨는 "춥고 비오는 날씨에 조기 행사 종료는 당연하지만 적어도 한 톨 정도가 남아 마지막 찾아오는 한사람에 까지 행사 조기종료를 알렸으면 훨씬 좋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축제에 참가한 어린이가 당번 보스톤커먼 한켄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5월 일본 축제를 준비를 위해 일본 동아리 학생들은 9월학기부터 회의를 갖고 준비했다. 이번 첫 축제의 경험이 다가올 보스톤 한국축제에서는 우천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1회 축제의 아쉬움은 그리 오래 남지 않을 것" 이라고 보스톤코리아 편집회의에서는 입을 모았다.

(이 기사는 일부 한인회 박진영 편집부장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인용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ditor@bostonkorea.com



12시에 시작된 한국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내외빈들 (사진: 박진영 한인회 편집실장)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발족한다

서천 사무총장 "내년 초 창설 계획"

연로한 한인들을 위한 "전용 장지 조성" 주요사업
서부에서 고립된 한인들의 교류와 친목이 주 목표
보스톤 한인회와는 적극적으로 협조 같이할 생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앰허스트 캠퍼스가 자리한 앰허스트를 중심으로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가 지역내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내년 1월께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서천(55)씨는 "서부 쪽에 약 한인 인구가 2-3백여명인데 교회 외에는 함께할 일이 없다. 그래서 보스톤 한인회 결까지처럼 서로 애경사부터 나누고 차츰 사람을 모아 가려 한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일이라 말은 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인데 한 분 두 분 나이도 들어가고 후세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을 스스로 사무총장에 위치시킨 서천씨는 "올해 초부터 출범시키려 했지만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년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보스톤 한인회와 상부 상조하고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좋은일에 초청하겠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가장 한인이 많은 곳은 앰허스트이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이에 딸린 학생 교직원 5만여명이며 이중에 한인 학생들 교직원들 합해 약 2-3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치코피, 스프링필드, 애머스트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등지 한인들도 아우를 계획이다.

매사추세츠 서부는 차로 약 2시간여 떨어져 사실상 타주인 뉴햄프셔나 로드아일랜드 일부 지역보다 더 멀다. 그래서 이 지역보다 서부의 한인들과 동부 뉴잉글랜드 거주 한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훨씬 드물다. 서천 총장은 "30-40년 전에 이민한 연로하신 한인들은 서쪽에서의 삶이 전부다"며 이 고립된 한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로고 작업도 마쳤고 정관도 준비중이다. 또한 회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 탐문하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한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이며 "재력과 학식

보다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애경사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묻힐 수 있는 한인 전용 묘지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특이한 제안을 했다. "이민생활 타지에서 이국인들 사이에 섞여 살았으니 사후에서도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란다. 특히 서부쪽은 땅값도 비교적 저렴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그동안 보스톤과 멀리 떨어진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의 한인회 형성문제는 여러 번 거론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 보스톤 한인회(전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매사추세츠를 대표하고 있으며 1개 주 1개 한인회라는 자연스런 원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인회 추진이 좌절되어 왔다.

과거 보스톤 지역에서는 당시 뉴잉글랜드 한인회에 반해 보스톤한인회를 창설해 한 때 두 개 한인회 관련자들이 서로 반목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점은 여전히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

서천 총장은 "그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말하고 "역할을 못하면서 감투를 위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 고립된 정보를 접하는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애경사를 위한



현재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서천(55)씨

것"이라며 "보스톤 한인회 식구를 뺏어 오지 않고 보스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한다면 도움이 되지 절대 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천 총장은 "담을 쌓고 아전을 구축하려는 생각은 없다.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다. 좋은 것만을 생각하려 한다. (보스톤 한인회와 서부 한인회간) 나쁜 것이 있을 이유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천 사무총장은 보스톤 한인회 임원으로 기획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큐 영화 연출, 연극 연출을 했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접고 이제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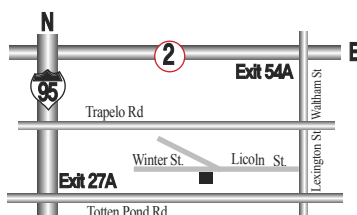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퍼블릭 차지 관련 성기주 변호사 인터뷰

매스헬스, 렌탈 현금보조, 영주권 취득에 영향 주나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 3일 렌트비를 현금바우처로 보조해주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CV) 대기자 명단 예비 신청서 접수 기회가 열렸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는 섹션8 (Section 8) 이라고도 불린다. 이 바우처는 정부보조의 저렴한 아파트에 입주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렌트비를 일정부분 소득에 따라 보조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 신청 접수도 잘 열리지 않는다.

케임브리지 주택공사 (Cambridge Housing Authority) 에서 접수하는 이 바우처 신청서 접수는 고액 렌트비가 부담스런 중저소득 한인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다만 영주권을 소지하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이 바우처 신청이 혹 공멸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오바마 케어 신청이 시작된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의 한인들은 필연적으로 정부세금크레딧 보조를 받게 된다. 또한 매스헬스 (메디케이드) 에 가입하는 한인들도 있다. 이 의료보험 혜택의 경우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 여부가 걱정되는 한인도 있다.

성기주 변호사와 이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봤다. 성기주 변호사는 “한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연방,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수혜,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몇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라고 밝혔다.

퍼블릭차지(Public charge)란 무엇을 뜻하나? 퍼블릭차지는 주로 이민법에서 쓰이는 용어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민자) 을 뜻한다.

왜 퍼블릭차지가 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나?

이는 이민법이 퍼블릭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Inadmissible), 심지어 영주권자도 추방 (Deportable) 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 심사관은 퍼블릭차지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비자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등 연방, 주정부 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영주권 신청의 목적으로 봤을 때 이민법은 생계의 대부분을 (Primarily) 을 정부보조에 의지하는 경우 퍼블릭차지라고 정의했다. 즉, 정보보조 수혜 자체가 수혜자를 자동으로 퍼블릭차지로 만들지 않는다.

또한, 퍼블릭차지로 판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사에 반영한다. 예를들면,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재산, 교육/기술 정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계속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비자/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때 어떤 정부 혜택들을 주의해서 받아야 하나?

말씀드린대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 자체로만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현금을 지원하는 보조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Various cash assistance programs (주정부 포함), 너싱홈(nursing home) 등 장기간의 입원요양 (메디케이드 포함) 같은 프로그램들은 수혜 자체로 퍼블릭 차지가 될 수 있고 바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신청이나 수혜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

메디케이드가 당장 필요한데 그럼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한가?

아니다. 매스헬스 (메디케이드의 MA주 버전) 수혜자를 퍼블릭차지로 만들지는 않는다. 매스헬스 중 너싱홈, 정신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입원 또는 장기 치료 (Long term care)로 보험혜택을 받게되면 퍼블릭차지로 판정된다. 하지만 이외의 매스헬스 의료보험은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퍼블릭 차지와 상관 없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나?

그렇다. 쉽게 생각하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장기적이지 않으며 주거와 아이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퍼블



성기주 변호사는 “한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연방,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수혜,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릭 차지와는 상관 없다. 예를들면 어린이 의료보험(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워(WIC) 프로그램, 학교무료급식, 데이케어 보조, 교육 보조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푸드스탬프 (Food stamp)와 바우처와 같은 주택 보조 (Housing Benefit), 직업교육 과 같이 당장 생활에 혜택을 주는 보조들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
모두는 아니지만 퍼블릭차지는 대부분 가족 초청 이민에서 이슈가 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족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 면역력 개선 / 통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려움증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상당)
추가 증정**

+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WALMART Burlington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 모두들 다들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아동복지, 주택보조, 매디케어, 직업훈련 등 영주권 취득에 영향 없어

▶▶4면에 이어서

초청 영주권 신청에는 보조 증서 (Form I-864) 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퍼블릭차지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목적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스폰서가 책임을 진다는 서약이다.

반대로 대부분의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퍼블릭차지와 관련없이 처리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인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자)과 피고용인 (영주권을 받는 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고용인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회사나 단체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보조 증서 (Form I-864) 를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한다.

취업관련 이민이라도 제한적으로 퍼블릭차지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종교관련 신청 (I-360) 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교관련 직종은 다른 일반 직종과 달리 급여가 아닌 의식주를 보조해 주는 등 다른 형태로 사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청자가 퍼블릭차지가 되지 않도록,

종교직 이외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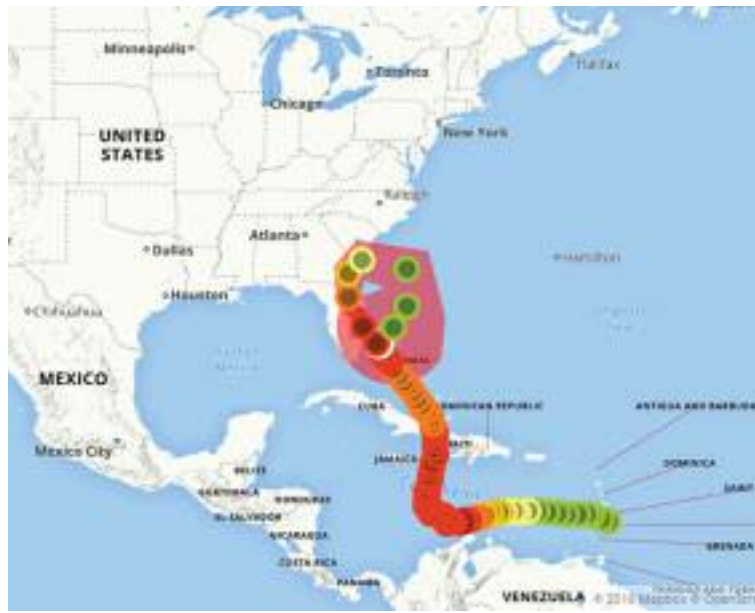
또한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인인데도 퍼블릭차지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혐의와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영주권 신청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퍼블릭 차지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정부보조를 받을 시 정말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에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미국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극빈자 자격으로 이와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퍼블릭차지에 해당되는 정보 보조를 받은 것 자체가 자동으로 수혜자를 퍼블릭 차지로 만들지 않는다. 실사 퍼블릭차지에 해당하는 정보보조자라도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영주권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시 보충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editor@bostonkorea.com



허리케인 매튜의 이동 경로

허리케인 매튜는 향후 경로 주목해야

▶▶1면에 이어서

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해 뉴잉글랜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반면 유럽측 기상 모델인 유럽 중기 기상 예측 시스템 (ECMWF)은 현재의 경로처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일부 영향은 주지만 바로 대서양 바다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기상 예측 시스템 중 유럽 측 모델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에도 유럽측 모

델이 예측한 것과 유사한 진행경로를 보여 유럽 모델이 또한번 정확도를 자랑하게 됐다.

미국 재난관리본부는 이번 허리케인 매튜의 진행상황을 두고 미 기상청, 미 허리케인센터, 스톰예측센터, 기상예측센터, 강수량 예측 센터 등의 자료와 유럽 모델, 그리고 영국 기상청 자료까지 참조하며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작년에 개최되었던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모습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5회 모금 만찬

10월 22일(토) 웰슬리 칼리지 클럽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2년 말에 설립되어 만 4년 동안 활동해 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후원자들과 함께 연례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웰슬리 소재 웰슬리 칼리지 클럽(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 Wellesley, MA)에서 열리는 연례모금만찬에서는 후원자들과 함께 올 한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년 간 예술협회는 매년 한국 전통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보스톤 무대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연례 미술 전시회와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14년부터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과 협력하여 음력 설날 (Lunar New Year Celebration)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복 및 세배 풍습 등 한국의 명절을 소개했다. 최근에는 보스톤의 작곡가 그룹인워드송(WordSong)과 함께 김소월의 영어 번역시로 만든 신작 가곡을 발표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 및 한인 관련 문화활동을 주관하고 지원했다.

이번 모금 만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후원을 위한 미술품 경매(Silent Auction)도 진행

한다. 한인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협회의 활동을 후원하는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이 기증되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한미예술협회는 2017년 일정도 빼곡하다. 2월 보스톤 미술관에서 제 4회 설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브랜다이스 대학을 방문하는 아시아 음악 연주단체인 PAN Project 의 한인 예술가 지원, 3월의 국악 공연, 11월에 조던 홀에서 열리는 과거 사중주단 연주, 연례 미술 전시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보스톤 지역의 한인문화단체로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다. 이 지역의 많은 한인 예술가들이 활동 기회를 원하고 있고, 보스톤의 미국 단체들과 다른 아시아권의 문화단체들이 협력을 원하고 있다. 계속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연례 모금 만찬 참가비는 1인당 \$100이며 한국식 애피타이저가 포함된 양식 저녁식사와 정유정, 석다연, 황솔기 씨가 참여하는 재즈 트리오 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www.kcsboston.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 781-367-5993)

bostonkorean@hotmail.com

클래식 앙상블 "What is Noise" 무료 공연

8일 오후 7시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개 뮤직 카페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카페 뮤직 나이트(Oasis Café Music Night) 무료 공연이 10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보스톤 한인교회 ECC센터에서 열린다.

이번에 초청되는 그룹은 현대적 클래식 앙상블 “What is Noise” 팀이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그리고 타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What is Noise” 는 미국전역을 순회 연주를 다닌다. 2014년 카네기 홀 데뷔 연주를 가진 적이 있다. <메리칸 스토리>란 콘서트 투어를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욕 등지에서 가졌다. 이 그룹은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교육적인 음악 아웃리치(outreach)에 앞장서고 있다.

“What is Noise” 란 앙상블의 이름은 Jacques Attali의 책, “Noise: The Political Economy of Music” 에서 따온 것으로, 음악의 본래적 사회적 가치,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그들



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연관성의 중요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인 박초롱씨가 이 그룹의 창립 멤버중 하나다.

일시: 2016년 10월 8일(토요일) 오후 7시
장소: Education & Community Center,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www.eccckcb.org

문의: 617.739.2663, eccckcb@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전 보스톤코리아 노래교실 보컬강사 정영애씨 2집 발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코리아에서 "노래교실" 보컬강사로 활동했던 가수 정영애 씨가 2집 앨범을 10월 11일 발매한다.

버클리 재학시절 미국에서 전과정을 제작했던 1집(The Man I Love)과 달리 이번 2집(Because I love you)은 한국에서 녹음하고 믹싱과 마스터링은 버클리음대 존 체이스가 담당했다.

이번 음반은 "머러블 뮤직"에서 배급을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CD와 디지털 음원으로 판매하며 미국에서는 디지털음원으로만 iTunes spotify 등에서 판매된다.

정영애 씨는 “2집 음반의 컨셉 중 하나는 <싱어송라이터>다. 제가 모든 곡들을 작사, 작곡, 편곡, 보컬 및 프로듀싱까지 담당했다. 리듬도 스윙, 보사노바, 블루스, 발라드, 국악재즈 등 다양해서 음반 전체를 들어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재즈 스탠다드를 주로 녹음했던 1집과는 대조적이다.

또 "국악재즈"- (108 Afflictions, New Arrang)를 시도했다. 정영애 씨는 이번 앨범에서 " 기존의 아리랑이 아닌 새 아리랑을 작곡해서 녹음을 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반도 안보 및 차기 미행정부 정책관련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차기 미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망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는다.

텡스대 플레처 스쿨과 보스톤총영사관은 공동으로 10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플레처 스쿨 (702 Cabot Road, Medford, MA)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1시부터 서울대학

교 신성호 교수, MIT 안보프로그램의 짐 월시 선임 연구원, 그리고 텡스 플레처스쿨 이성윤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두번 째 차기 미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는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터 선임연구원,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그리고 술칸 플레처 스쿨 교수가 참여해 토론한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게리 세모

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터 선임연구원, MIT 안보프로그램의 짐 월시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신성호 교수, 술칸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므로 관심있는 한인 또는 한인 유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해 미 전문가들의 한반도 관련 견해를 들어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가을 등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0일 콜럼버스데이에 뉴햄프셔에 있는 카디건 마운틴(Mt Cardigan)으로 가을 등반을 떠난다.

카디건 마운틴은 정상이 바위로 이루어져서 사방으로 내려다 보이는 가을경관으로 유명하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시원한 가을 공기와 단풍구경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조회장은 “이날은 등산객이 많고 산장의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 애틀보로 쇼핑센터(95번 2A출구)의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인원을 점검하고 카풀을 배정한 후 7시 30분 출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준비물은 점심과 물, 자켓, 등산화(편한신발),선글라스 등이다. 등산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조봉섭 회장(401-632-7401)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AMC산장까지 2시간 반이 소요되며 등산은 AMC 산장에서 시작, 왕복3마일이고 3시간정도가 소요된다.

시간: 10월 10일 콜럼버스데이
장소: Mt. Cardigan (3155 feet):

777 Shem Valley Rd, Alexandria, NH 03222. Appalachian Mountain Club (AMC) 산장

준비물: 점심과 물 각자준비, 자켓, 등산화(편한신발), sunglass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신임 권성환 부총영사와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통 보스톤협의회 임원진은 9월 10일 워터타운 소재 뉴긴자에서 새로 부임한 권성환 부총영사와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권성환 부총영사와

이광석 영사는 북한 방문 경험을 공유했다. 이현경 평통 홍보간사는 “권 부총영사와 이광석 영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통일이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고 밝혔다.

한선우회장은 신임 권 부총영사에

게 “국가를 대표하는 한 분으로서 외교사절의 역할 및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더욱 신경써달라” 고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좌로부터)이광석영사, 이현경홍보위원장, 김현주부간사, 한선우회장, 권성환부총영사, 조진행차세대위원장, 오진관영사, 황우성간사

뉴햄프셔 한인회 화관 건축기금 모금 바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한인회의 한인회관 건축기금모금 바자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슈아 한마음 교회에서 개최된다.

조은경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진행해 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과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붓글씨 시연, 한국어 이름 쓰기, 종이접기, 페이스 페인팅 등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 진행된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우천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실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기예보에 따르면 광역성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다.

일자: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우천시는 실내에서 오후 2시까지 행사)

장소: 내슈아 한마음 교회 (555 Broad Street, Nashua, NH)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수빈 L (노래 부문 우승자)



아셀 H (랩 부문 우승자)



알렉스 C (춤 부문 우승자)

글로벌 케이팝 경연 우승자 3명 결정됐다

숨피 세계 케이팝 인재 선발 '라이징 레전드' 최종 결과 발표
전세계 112개국, 5000편 이상 지원자 중 노래, 춤, 랩의 3개 부문
한국의 수빈 L(노래 부문), 미국의 알렉스 C(춤 부문), 터키의 아셀 H(랩 부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글로벌 한류뉴스 사이트 '숨피(Soompi)'가 실시한 세계 케이팝 인재선발 오디션에서 노래부분에는 한국의 수빈 L(18), 케이팝 댄스 부문에는 미국의 알렉스 C(19), 그리고 랩 부문에서는 터키의 아셀 H(16)가 각각 최종 우승자로 선발됐다.

한국의 연예기획사 JYP와 함께 진행한 '라이징 레전드(Rising Legends) - 글로벌 K팝 탠런트 서치'에는 전세계 112개국에서 5000편이 넘는 케이팝스타 지망자들의 작품이 제출됐다. 주최측은 5일, 3명의 우승자를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오디션은 지망자들이 각자 녹화해 유튜브에 올린 파일을 전세계 케이팝 팬들이 시청한 뒤 인기투표를 통해 예선 통과자를 선발했다. 1, 2차에서는 팬투표만으로 선발했으며 최종 3차

오디션은 팬 투표와 함께 미국의 빌보드(Billboard), 버즈피드(Buzzfeed), 퓨즈(Fuse), 헬로아시아(Hello!Asia) 소속 전문가 4명의 심사 결과를 합산해서 결정됐다.

최종 우승자 3인은 '라이징 레전드' 공동 주최사인 JYP 측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JYP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연예기획사들에 스카우트되어 차세대 K팝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숨피 설립자이자 현재 비키의 퍼블리싱 책임자인 수잔 강(Susan Kang)은 "차세대 K팝스타를 발굴하려고 처음 행사를 기획할 때만 해도, 전세계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지망자들이 많이 몰려들 줄은 몰랐다"고 밝히며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을 배출한 JYP와 함께 전세계 K팝 팬들을 상대로 함께 오디션을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JYP A&R팀 매니저 블레이크 리(Blake Lee)는 "이번 '라이징 레전드' 오디션 참가자들 면면이 너무 다양해서 놀랐다. 이는 K팝 인기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JYP 오디션이 재능 있는 K팝 스타들의 등용문이 된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숨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TV사이트 '비키(Viki)'의 자회사이며, K팝 뉴스와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장한 최대 한류뉴스 사이트이다. 이번 '라이징 레전드'는 112개국 참가자의 1/3 이상이 미국, 캐나다의 북미지역 거주자였으며 나이지리아, 이란, 베트남, 스웨덴 등 소속 국가도 매우 다양했다.

hsb@bostonkorea.com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 노먼 록웰 미술관에 1.5백만 불 기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스타워즈'를 만든 감독 조지 루카스(George Lucas) 덕분에 노먼 록웰 미술관(Norman Rockwell Museum)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하게 되었다.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스톡브리지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조지 루카스가 가족 재단으로부터 1.5백만 불(한화약 16억 7,100만 원)의 기부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향후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이에는 온라인 상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 투어 및 강의와 팟캐스트를 연결하는 "미디어 허브"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미술관은 또한 앞으로 소셜 미디어

어를 통한 홍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K-12의 강의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젊은 팬 층과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1.5백만 불의 기부금을 지원한 조지 루카스는 노먼 록웰 작품의 오랜 컬렉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에 루카스는 1951년에 그려진 록웰의 회화 작품 "감사기도(Saying Grace)"를 4천6백만 불에 구입한 바 있다.

예술가 노먼 록웰은 뉴욕에서 태어나 스톡브리지에서 25년간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1978년에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미술관이 오픈한 것은 1969년이다.

sun@bostonkorea.com



노먼 록웰의 작품 3중 자화상(이미지 출처 moa.byu.edu)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tural Memb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Hanboston
북부보스톤한인교회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초빙합니다.**

북부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유스그룹 전도사님을 초빙합니다.

자격은 신학교 재학 또는 졸업하신분으로 주10시간 이상 헌신할수있고, 2세 청소년들 영어사역에 경험과 소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업무: 최소 주10시간 사역 (토요일 저녁모임 및 주일아침 예배, 등)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와 같이 연락 바랍니다.

문의: parkwonsa@gmail.com/978.269.4198
교회: 978.470.0621

주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아이폰7 구입한 보스토니안, 실제 만족도는?

구입자들 대체로 만족, 언론 보도된 문제들 불편 없어
7으로 옮겨야 하는 당위성 못 느껴, 선택은 개인의 몫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애플의 아이폰7이 7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 당시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이폰7의 첫 주 판매량도 아이폰6보다 25% 줄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소비자들을 망설이게 만든다. 실제 아이폰 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새 휴대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실 구매자들의 평가와 반응을 언론에서 주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폰 잭 제거

아이폰 7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이어폰 잭의 제거였다.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5mm 아날로그 이어폰 대신 8핀 충전 단자를 사용하는 아이폰7 전용 이어폰을 쓰거나, 3.5mm 변환 아답터 부착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

다카시 씨는 “애플에서 제공한 이어폰 성능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가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다”며 “8핀에서 3.5mm로 바뀌는 건더는 거추장스러운데다가 음질이 본래 성능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탄 씨는 “이어폰과 배터리 충전을 한 개의 단자라면 해야 해서 불안했는데, 배터리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 되어서 아직까지 불편함은 없다”고 말했다.

카메라 성능은?

아이폰 카메라는 색감은 좋지만 센서 크기, 렌즈 밝기, 손떨림방지 등의 카메라 성능에서 항상 타사의 모델보다 뒤쳐져 있어 서브 카메라로 쓰고 싶은 카메라 애호가들은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폰 7에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사진 결과물에 있어서는 아이폰 6와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카메라의 화질을 결정하는 센서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폰7 플러스의 경우 LG전자 G5가 채용했던 듀얼렌즈를 채용하여 DSLR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아웃 오브 포커스(피사체의 뒷 배경을 흐리게 표현하는 효과)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아이폰은 정말 물에 약한가?

삼성의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폭발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폰 7에서는 방수기능이 불량하



아이폰 7의 색상은 실버, 골드, 로즈골드에 블랙 색상과 제트 블랙 색상이 추가되었다. 제트블랙은 흠집에 취약한 편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다는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 국내 언론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2시간동안 물속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실험을 인용하며 실험이 끝난 뒤 5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충전 잭이 물에 젖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5시간동안 말린 뒤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수준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이 실험이 애플사에서 지정한 방수 기준을 넘은 실험만큼 이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밝혔다. 아이폰의 방수기능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내구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약세사리는 아이폰7 전용 제품으로

아이폰7은 아이폰6와 크기가 같아 6용의 약세사리들과 호환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이폰7의 후면의 카메라는 아이폰6와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고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아이폰7 전용의 케이스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 탄 씨는 “온라인 상점에서 아이폰6용으로

로 발매된 화면보호 필름도 아이폰7의 스피커 및 화면 하단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며 아이폰 6와 7 공용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아이폰7 전용 제품으로 구입하라고 전했다.

실 구매자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 7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리나 씨는 “아이폰의 전작들이 출시될 때 마다 고가로 판매되어 7이 발표되면 가격이 내려간 6를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저렴하게 출시되어 마음을 바꿔 7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해보니 80%남은 상태에서 한나절을 사용했는데 30%가 남아있었다며, 배터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카시 씨는 “아이폰 6와 비교해서 크게 바뀐 것이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 5와 같은 사용자들이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추천하겠지만, 6에서 7으로 굳이 넘어와야 할 이유는 사람에게 따라 없을 수도 있다”며, 다만 자신은 “새 휴대폰이 생긴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아이폰7은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하지만 물속에 넣은 뒤 생기는 문제는 사용자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 WSJ.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 어깨, 허리 통증, 근육경직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감소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 후 재활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이상
- ⑧ 정기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민 6명 미국 최고 부자에 꼽혀

피델리티 CEO 애비게일 존슨 MA 최고 부자
미국 최고 부자는 23년 연속 빌 게이츠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인 중에서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인물은 6명이 포함되었다. 올해로 35년째를 맞는 포브스의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은 순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애비게일 존슨(Abigail Johnson, 54, 밀튼 거주)이다. 미국 전체 순위에서는 29위를 차지해 엘런 머스크와 루퍼트 머독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존슨은 미국에서 4번째로 가장 부유한 여성이기도 하다.

존슨의 순자산 가치는 132억 달러이다. 존슨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2014년에 아버지에서부터 피델리티 투자회사를 물려받았다.

애비게일 존슨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존슨 3세(Edward Johnson III, 86, 보스톤 거주)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2번째로 부유한 인물이다. 에드워드 존슨 2세가 1946년에 설립한 피델리티 투자회사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순자산 가치는 71억 달러이다. 미국 내 순위는 68위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 뉴발란스의 소유주이자 회장인 짐 데이비스(Jim Davis, 73, 뉴튼 거주)는 52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로 미국에서 94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꼽혔다. 데이비스는 1972년에 뉴발란스를 인수했는데, 당시에는 하루에 30켄레 정도의 신발만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였다. 오늘날 뉴발란스는 연간 37억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소유주인 로버트 크래프트(Robert Kraft, 75, 브루클라인 거주)는 부자 순위 102위를 기록했다. 순자산 가치로 5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구팀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도 크래

프트가 소유하고 있다. 크래프트는 1994년에 패트리어츠를 1억 7,2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현재 패트리어츠의 가치는 34억 달러 이상이다.

90년대 케이블 TV 시장을 개척하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아모스 호스테터(AMOS Hostetter Jr., 79, 보스톤 거주)는 31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로 214위에, 캠퍼리지에 위치한 IT기업 인터시스템즈의 설립자인 필립 레이건(Phillip Ragon, 67, 보스톤 거주)은 18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로 374위에 올랐다.

올해 미국 최고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이다. 810억 달러의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츠는 23년째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히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최고 부자는 피델리티 투자회사의 CEO인 애비게일 존슨이다



하버드 구내 식당 직원들이 파업을 했다

하버드에서 33년만에 처음으로 파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30년 이상 파업을 볼 수 없었던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5일 식당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구내 식당 직원들과 하버드 대학교 사이에서 몇 개월 간 진행되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지난 수요일 새벽 5시경, 주로 하버드 신입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인 앤버그 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버드 재학생과 식당 직원 40여 명은 2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원형으로 이동하며 “이봐 하버드, 너는 숨

을 수 없어. 우리는 너의 탐욕스러운 면을 볼 수 있어” 라고 소리쳤다. 앤버그 홀 외에도 하버드 캠퍼스 곳곳에서 수백 명의 식당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번 파업은 1983년 6월 이후 하버드에서 처음 발생한 파업이다. 하버드 구내 식당 직원 노조는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에 한해 연봉 35,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의 직원 부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동결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저가오농분, 서울설렁탕의 미진, 국명, 보양, 육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ef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레드삭스의 황제를 위한 최고의 은퇴식

명예의 전당 입성 미지수 불구 '34번' 영구 결번 발표
보스턴 내, 빅 파피 브릿지, 오티즈 드라이브도 생길 전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턴 레드삭스의 간판타자 데이비드 오티즈(41)의 등번호 34번이 영구 결번된다. 그를 기념하는 다리과 거리의 이름도 새롭게 명명된다.

오티즈의 은퇴식이 거행되었던 지난 2일 레드삭스는 깜짝발표를 했다. 레드삭스에서 쌓은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등번호인 34번을 영구 결번하겠다는 것이었다. 1997년 미네소타에서 메이저리거로 데뷔한 오티즈는 2003년 레드삭스로 이적하여 이듬해 레드삭스에 87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겨준 것을 시작으로 총 3번의 우승트로피를 레드삭스에 선사했다. 올해는 38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은퇴시즌 선수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는 등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올 시즌기록은 151경기 537타석 타율 .315 127타점 38홈런.

레드삭스의 영구결번 조건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선수가 영구결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레드삭스에서 명예의 전당에 현역되지 않은 선수가 영구결번을 받은 사례는 1940년대에 활약한 자니 페스키 뿐이다. 그마저도 1946년 월드시리즈에서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2004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기 까지 60년간 레드삭스 팬들로 부터 비난받은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컸다. 게다가 오티즈는 2009년 뉴욕타임스에 의해 2003년 실시된 비공개 검사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 밝혀져 명예의 전당 입성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의 발표 이후 그는 선수생활 내내 '약쟁이'라는 오명에 발목잡혀왔다. 이날 오티즈의 은퇴식의 참가한 립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총재는 인터뷰에서 "지금 금지약물로 지정된 약물 중에 당시에는 금지약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2003년 테스트처럼 당시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금지약물 복용자로 인식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오티즈는 정규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지난 2일, 홈구장에서 화려한 은퇴식을 가졌다. 레드삭스의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그

의 명성에 걸맞게 은퇴식은 50분간 진행되었다. 그의 은퇴식에는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와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도 참가했다. 은퇴식의 주인공인 오티즈는 눈물을 보이며 "나는 너무 지쳤다. 비록 오늘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포스트시즌을 준비하겠다"며 마지막 포스트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명예의 전당 입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필드에서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내가 이룬 업적과 행복에 자부심을 느낀다 (중략) 모든 것은 투표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오티즈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보스턴 내의 다리 한 곳을 오티즈의 별명인 '빅 파피' 다리로 부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도 홈구장인 펜웨이파크 근처의 거리를 '데이비드 오티즈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지난 2일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데이비드 오티즈의 은퇴식에서 오티즈는 영구결번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다리과 거리 이름을 선물받았다

보스턴팝스, 독립기념일에 에스플라나드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콘서트 인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에스플라나드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콘서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97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7월 4일, 50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며 독립기념일의 전통이 된 이 축제가 보스턴팝스에 인수되었다고 지난 3일 보스턴글로브는 보도했다.

팝스는 발표를 통해 프로듀서 데이비드 무가(David Mugar)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의 전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프로듀서 데이비드 무가에 의해 43년 동안 기획되었던 이 축제는 작년 12월, 77세를 맞은 무가가 2016년의 쇼가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밝힌 이후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했었다.

팝스는 무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보스턴 4 프로덕션스(Boston 4 Productions)의 이 축제를 이어받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콘서트가 무료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스폰서를 찾을 것이라 밝혔다. 무가는 지난 2016년의 이벤트에 협력 스폰서를 찾지 못했고 따라서 스스로 2백만 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팝스는 초창기부터 이 축제의 일부분에 참여했다. 이는 무가가 팝스의 지휘자 아서 피들러(Arthur Fiedler)에게 차이코프스키의 "1812 Overture"의 연주를 제안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무가는 콘서트에 불꽃놀이를 비롯하여, 곡사포, 교회 종 등을 추가했다.

무가는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이 시그니처한 이벤트는 팝스의 것"이라고 말했다. 팝스의 현 지휘

자이자 지난 22개의 불꽃놀이 콘서트를 주관해온 키스 록하트(Keith Lockhart)는 이번 인수를 "논리적인 계승"이라고 표현했다.

록하트는 또한 관중들이 미래에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팝스는 이 시그니처한 이벤트에 온전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벤트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변화 또한 있을 것이라 밝히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폰서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들은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웬만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스는 몇몇 가능성 있는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고 록하트는 말한다.

하지만 만약, 스폰서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록하트는 "우리는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위임되었다. 그런 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해 협력 스폰서의 여부가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남겼다.

록하트는 대신, 협력 스폰서를 찾는 일에 "매우 자신있다"고 말하며 특히 주지사 찰스 베이커와 보스턴 시장 마티 월시의 협력으로 인해 이 축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팝스의 이번 인수 발표에는 주지사와 시장의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가의 리더십과 팝스의 새로운 역할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토론 한방에 펜스 '차기 대선후보' 부상 트럼프엔 '악재'

당 주류가 기대한 '대선후보'면모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부통령후보 TV토론에서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면서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펜스 후보가 4일(현지시간) 치러진 부통령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의 네거티브성 공격에 맞서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토론의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옹호하는 '대리전' 역할을 해야 할 부통령토론에서, 펜스 후보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서보다 펜스 자신으로서 조명을 받았다는 점이다.

펜스 후보는 토론 내내 반(反)이민·반무슬림 정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칭송,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신고립주의 외교 등 트럼프의 발언·정책을 부인하거나 무시했다. 잇단 논란을 유발한 자신의 파트너와 다소 거리를 두며,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것.

이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는 펜스 후보가 '대선후보'가 갖춰야 할 적절한 태도와 노련한 토론기술을 선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0년 유력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른 전현직 공화당 중진세력도 펜스의 침착한 토론자세를 유념 있게 봤다. 한 소식통은 "토론기술을 알고, 공화당원이 현안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는 후보를 가졌을 때 느낌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긍정했고, 혹자는 펜스를 "2016년 대선 사상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트럼프를 대신해 펜스가 대선후보로 '승진'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덤 킨징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펜스를 대통령으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토로하며 "내가 도널드 트럼프라면, 펜스의 토론을 배워서 그를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캠프의 존 포데스타 의장은 MSNBC방송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 후보(the top of the ticket)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펜스는 2016년 대선보다 2020년 대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로서는 펜스의 토론승리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부통령 토론에서 펜스는 이겼지만 트럼프는 졌다"면서 이것이 트럼프 캠프 내 불화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펜스 본인은 "토론이 끝난 직후 도널드 트럼프가 내게 전화해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실제 승리를 가져온 것은 트럼프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그의 비전이었다"면서 충실한 부통령후보임을 재확인했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캠벨 전 차관보 "클린턴 대통령 되면 北에 매우 엄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북한에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아시아 등에 따르면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외교자문을 맡고 있는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 참석,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현실의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클린턴 후보가 회담한 사실 등을 거론, "클린턴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의 미사일) 미일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와 클린턴 후보는 뉴욕

회담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응키 위해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캠벨 전 차관보는 클린턴 후보가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러일 평화조약 체결 및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일본의 대(對)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략적 식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측에 경제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도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캠벨 전 차관보는 아베 총리와 클린턴 후보의 회담에 동석했다.

ys4174@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ft@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진품상 차가 있는 해피돌상
 1. 고급의 진품상 차가 있는 해피돌상
 2. 고급의 진품상 차가 있는 해피돌상
 3. 고급의 진품상 차가 있는 해피돌상

문의 617.248.3131 Happydolway@g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섬삼짱 도와드려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10년래 최강 허리케인 '매튜' 강타 아이티 재앙 상황

최소 23명 사망...피해 더 늘듯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카리브해 연안 아이티에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사망자가 5일(현지시간) 최소 23명으로 늘어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티 재난당국은 이날 "재앙을 맞은 피해 지역의 통신이 재개되면서 사망자 집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최소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슬렘 프리베르 아이티 임시대통령은 이날 피해 상황에 대한 미국 해안 경비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주요 도시의 상황은 재앙 수준"이라며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레케이, 제레미 등 서남부 주요 도시 일대에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23명 가운데 3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실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

시민보호국의 에드가 셀레스틴 대

변인은 "태풍의 눈에 들어 통신이 두절됐던 그랑앙스 지역은 사망자 집계에서 누락됐다"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는 2만 10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다.

셀레스틴 대변인은 "이재민들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수와 식량"이라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뽀띠그아브에 있는 라디그 강을 한 남성이 여성을 안고 건너고 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다리가 붕괴됐다

10년간 카리브해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매튜의 여파로 아이티에는 콜레라가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매튜가 강타한 뒤 현재까지 이미 8건의 콜레라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AFP는 전했다.

아이티에서는 2010년 지진 이후 창궐한 콜레라로 지난 7년간 1만명이 사망했다.

baebae@news1.kr

허리케인 '매튜' 접근에 플로리다 주민 150만명 대피령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동부 연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에 대비해 텍스cot 플로리다 주지사가 6일 주민 150만명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코트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튜의 상륙에 따라 강풍과 폭풍해일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해 아이티 등에서 27명의 사망자를 낸 매튜는 4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강화한 채 현재 플로리다를 향해 북서진중이다.

스코트 주지사는 해안 지역에 1.5~2.7m에 달하는 폭풍해일이 일 수 있다고 전하며 "해일이나 파도가 발생하는 곳에 가깝게 체류한다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hung@news1.kr



텍스cot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Introducing Pixel Phone by Google

4일 구글이 공개한 픽셀 스마트폰

구글, 고급 스마트폰 시장 본격 진출... '픽셀' 2종 출시

32GB 5인치 649달러로 아이폰7과 동일 가격 책정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구글이 4일 스마트폰 신제품 '픽셀'을 공개, 약 4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픽셀 폰은 이날부터 선 주문을 받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구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공개행사를 통해 5인치(12.7cm) 픽셀과 5.5인치(14cm) 픽셀XL 등 2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4GB 램과 32GB 또는 128GB의 저장 공간,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인 7.1 '누가'(Nougat) 등의 사양을 갖추었다. 또한 최신 1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고, 7분 만에 충전 가능한 7시간 수명의 배터리를 달았다. 색상은 검은색,

파란색, 은색 등 3가지이다.

가격은 32GB 기준으로 5인치 픽셀이 649달러(약 72만원), 5.5인치 픽셀 XL이 769달러로 책정됐다. 애플의 아이폰7도 649달러다.

릭 오스텔로 구글 하드웨어 총책임자는 이번 신제품은 하드웨어에 보다 더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날 스마트폰 외에도 VR(가상현실) 헤드셋인 데이드림 뷰(Daydream View)도 함께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다음달부터 7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스마트 홈' 기기인 '구글 홈'도 함께 공개했다. 홈은 AI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acenes@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저육볶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Newton Centre, Newton \$ 1,399,900
 넓기드문 현명풍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대가 있어, 총 수납 약 16,000,
 대지 면적 8000 sq.ft, 1970s 80764



Newton \$1,300,000
 271구세부, 건축가\$104,900, 대지면적4220sq ft,
 일대일로 양대 차가 있음.
 행복하기 좋은 주택 7 근접, 보스톤대학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후가량과 6067sq ft,
 대지면적 16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후가량과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접.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후가량과 679sq ft,
 40도 line \$ 200 수납, 1st floor(1600)
 6500 평상적 대지, T location,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로 좋은 방4개 화장실 4.5개
 후가량과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쁜 최고의 학교, 근방의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아베 "위안부 사과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안해"

국회 답변서 "한일 합의 내용 밖의 것" 일축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최근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과' 편지를 보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민진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과 편지 발송은 "(한일 간) 합의 내용 밖의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과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아베 총리 명의의 사과 편지 발송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달 29일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들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키로 한 10억엔(약 109억원)이 지

난달 31일 재단 측에 송금됨에 따라 "양국 합의에 따른 일본 측의 책임은 완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철거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도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일)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이행해가는 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갈등 및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관련, 최근 일본 내에서 쿠나시르·시코탄·이투롭·하보마이 등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만 우선 러시아로부터 돌려받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북방영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4개 섬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아베 '사죄편지 털끝만큼 생각안해'에 "언급 안해"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 분들의 명예 및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한일 간) 합의내용 밖의 일"이라며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조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낼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에 "일본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greenaomi@news1.kr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7 - OCT 13, 2016

KOREAN COLA CHICKEN

Use your soda to make an authentic Korean Jjimdak!
H마트와 함께 만드는 맛있는 하계식사!
콜라로 만드는 간장찜닭 황금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Columbus discovered America, you discover the savings. Fall BBQ specials are waiting. 콜럼버스데이 바베큐도 H마트와 함께 하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Hami Melon 하미 멜론 \$1.29 lb	Ginger 생강 \$0.88 lb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lb	Gobo 무영 \$1.99 lb	Nagaimo 일본 마 \$3.99 lb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햇골드 키위 \$21.99 box	Packed Garlic 마늘 팩 5oz/pkg 2\$3 pkg/for	Washington Fuji Apple 왕애플 후지애플 프리미엄 \$1.49 lb	JINGA Tofu 진기네 두부 Firm/Soft - 16oz \$0.9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8oz \$9.99 lb	Skin-on Pork Belly Chunk 껍질있는 수육용 멥고깃살 \$5.99 lb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넬염살 스테이크) \$6.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비빔국용 생식겉살 \$6.99 lb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 가슴살 \$2.49 lb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s(LA) 양념 LA갈비 \$11.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u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미 15 lb \$9.99	CJ Cooked White Rice CJ 백미 7.4oz x 12/bag \$13.99
KWANGCHUN Parae Green Tea Seaweed Laver 0.7oz x 10/bag \$9.99	KADOYA Pure Sesame Oil 기름이 맑아진 \$14.99

CJ SHOWCASE EVENT

AUTUMN SAVINGS

Until - Oct. 13th, 2016 at Hmart Burlington

Enjoy great tasting CJ products at unbeatable price.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alted Yellow Croaker 저민 참돔 \$5.99 lb	PAUL PLAZZA Wild Shell-on Headless White Shrimp 자연산 무머치머나 머리없는 흰새우 26-30/1 lb - 1 bag \$7.99
Catfish 메기 \$1.99 lb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oz \$9.99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뽕통베이 섀넌 꽃게 1.5 lbs. (2L) - pkg 2\$10.99 pkg/for	TONGTONGBAY Oyster 뽕통베이 정형생굴 Oyster 1oz/pkg \$3.99

PULMONO Noodle with Spicy Oyster/ Crab Soup 뽕무림 뽕탕 굴/꽃게 탕 \$4.99 3.4oz x 7ea / pkg	CHUNGJONGNE Red Pepper Paste 고추장 \$14.99	HAJO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소고기 양념 \$3.99 2.11 lb.	BRAGG Organic Apple Cider Vinegar 브래그 유기농 사과식초 \$5.99	HOUSE WARMER Curry 카레 2\$5 10.9oz / 8.9oz
HAJOEUM Bar Top Shell 해오름 굴껍질 \$4.99	S-SHAKUKU Japanese Style Samukya Udon Noodles 시리시리 우동 \$3.99 1.31oz x 7ea / pkg	GYOZ Gyoza Dumpling Family pack gyoza \$5.99 All varieties - 1.54lb.	MISSUI Fish Sausage 미수이 소세지 \$3.99 10.5oz.	ONGSUN Meam Coffee Mix 옹선산 메엄 커피믹스 \$12.99 1000g/box
HAPPY CLOVER Wheat Flour Cake 해피클로버 스카이스 쿠키 \$3.99 All varieties - 7.25oz	BRIGO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5.99 6.6oz x 6ea / pkg	AI ZIP Washline Brand Size 세탁제 \$199.99	TOGER Electric Water Heater 전기물보일러 \$6.99 - \$68.99	TOGER Electric Water Heater 전기물보일러 \$129.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ultiple variation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nd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nded sale item. All final sale prices depend on all major credit cards. (문의: 877-427-7386) H-MART 314 EASTON ST. #2 42 Middlebury, Burlington, VT 05402 / TEL: 761-221-42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태풍 '차바'강타에 늘어나는 인명피해...7명사망 · 3명실종

산사태 · 범람 · 침수 · 강풍사고...전국서 23만가구 정전
자동차 1046대 침수 등 막대한 재산피해

이재민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지에서 90세대 198명으로 집계됐다.

제중이며 경주지역 1개 국립공원 39개 탐방로가 현재 통제중이다. 구급인원 7838명과 장비 2200대가

동원돼 피해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278세트가 긴급 지원됐다. pjy1@news1.kr

태풍의 영향으로 주택 14동이 반파되고 508동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와 전남 등 농작물 침수도 7747ha나 됐다.

도로 17곳이 사면유실되고 하천 6곳이 제방유실됐다. 경북과 울산 등 21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방파제 2곳도 파괴됐다.

차량은 울산에서 900여대 침수를 비롯해 제주와 경북 등지에서 총1046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어선의 경우 2척이 전복되고 2척은 침몰됐다.

제주와 전남, 경남, 부산, 대구 등 남부지방 22만8579가구가 정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의 경우 국내 5개 항로가 통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5일 경북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형산강 서천둔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이 불어난 강물에 침수돼 있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할퀴고 간 남부지방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 재산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울산 중구 태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씨(52 · 여) 씨가 숨진채 발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경주 양북면 봉길해수욕장 인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이 숨진채 발견됐다.

또 울산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려다 실종됐던 구조대원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남 사망자 4명을 더해 총 7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실종자는 현재 3명이다. 제주항 제2부두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옮겨타려던 남성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고 경주에서 차량 전도로 실종됐다. 또 경남 밀양에서는 잠수교 급류로 1명이 실종됐다.

10월수출 태풍에 직격타...현대차 울산공장 이틀째 가동중단

산업부 "파업에 태풍까지...수출액 차질 불가피할듯"

(서울=뉴스1) 신준섭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태풍 '차바' 영향으로 이틀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10월에 수출반등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 파업으로 8만대 가까운 수출 차질을 빚으며 지난 8월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섰던 수출을 다시 끌어내린 바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태풍으로 침수된 현대차 울산2공장은 △야반 때 △산타페 △투싼 △i40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침수 여파로 차질을 빚은 해당 모델은 현대차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 정상화다. 현 시점에서는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 토사가 쌓여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공장을 언제 재가동될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공장은 내수와 수출 물량을 모두 생산하는 공장인만큼 수출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업체는 현 시점에서 최소 1000대 이상의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파업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까지 겹쳐 10월 수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파업 여파로 7만9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수출액이 11억4000만달러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409억달러로 434억달러를 기록한 2015년 9월보다 25억달러가 줄었다. 감소액 가운데 약 46%는 자동차 수출부진에서 비롯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체 수출액 차질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복구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man321@news1.kr



5일 태풍의 영향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 출고장이 물에 잠겼다

태풍 '차바'맹폭에 주택926 · 상가150 · 공장 22동 침수

인명피해 오전과 동일 7명사망 · 3명실종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할퀴고 간 남부지방에 10명의 사상 및 실종자가 발생하고 주택 926동이 침수되는 등 인명 · 재산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주택 926동과 공장 22동, 상가 150동이 침수됐다고 밝혔다.

주택침수의 경우 울산 767동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7동, 제주 20동, 전남 1동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선 주택 외에도 공장 22동과 상가 150동이 침수됐다.

또 현대자동차는 침수로 인해 1공장이 중단됐다 복구됐으며 2공장은 여전히 복구중에 있다.

농경지도 9330ha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차량은 울산 1411대를 비롯해 총 1981건이 침수됐으며 어선 6척이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38곳이 사면유실됐고 하천 15곳이 제방유실됐다. 전남과 제주 등에서 가로수 294그루가 부러졌다.

제주와 전남, 경남, 부산, 대구 등 남부지방 22만8579가구가 정전됐다.

현재 경주지역 1개 국립공원 2개 탐방로만이 통제중이다.

구급인원 7838명과 장비 2200대가 동원돼 피해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314세트가 긴급 지원됐다.

pjy1@news1.kr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울산지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시장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942.5670
jae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k@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해 위치
Full liquor, 안경대인 수질,
넓은 자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경대인 세탁
Asking **\$180,000**

LISTINGS

- 1. Full Part 아파트: 북부해 위치, 무제한 주차 \$1,375,000 **SOLD**
- 2. Full Part 아파트: Medford에 위치, Asking **\$80,000**
- 3. Full Part 아파트: MA를 북부 해, Asking **\$180,000**
- 4. Full Part 아파트: Roxbury E Mall 안에 위치, 좋은 투자용, Asking **\$25,000**
- 5. 레스토랑 사업: Mattapee 위치, **\$40,000**
- 6. 레스토랑 사업: Norwell에 위치, **\$21,900**
- 7. MA를 E20 빌딩: Asking **\$22,500** **CALL FOR MORE**
- 8. 빌딩: 771 Harvard St, Unit 2, Boston **\$1,400** **RENTED**
- 9. Single Family: 30 Wino park, Winthrop **SOLD**
- 10. Office: 25 Harvard St, Unit 1, Winthrop **SOLD**

- 11. Multi Family: 23-25 Baker St, Boston **SOLD**
- 12. Office: 400 Adams **SOLD**
- 13. Single Family: 94 Oak St, Newton **SOLD**
- 14. Office: 47 Haver Ave, Unit 6-8 Cambridge **SOLD**
- 15. Office: 47 Garden St, Unit 11-12 Boston **SOLD**
- 16. Office: 10-10 Essex St, Unit 200 Cambridge **RENTED**
- 17. Office: 11 Essex St, Cambridge **RENTED**
- 18. Office: 107 Parker St, Unit 200 East Boston **RENTED**
- 19. Single Family: 8 Green Way Bedford **SOLD**



델리&커피비니언스

좋은 위치 설립됨
Asking **\$120,000**



입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커피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경찰, 백남기씨 고의적 살수 은폐시도"

백남기씨 쓰러질 당시 상황속보만 폐기돼 이철성 청장 "백남기 유족께 깊은 위로"...첫 애도

(서울=뉴스1) 차윤주, 김일창 기자 =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의 은폐시도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질의에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백씨가 쓰러진 집회에서 경찰이 내부 보고를 위해 30분 단위로 작성한 상황속보 등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부 규칙상 상황정보는 보고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이 청장은 "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에는 지면으로 (보고)했는데 이제 문자로 대체돼 보고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를 1보부터 20보까지 제출했는데 이걸 파기했다는 것 인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야당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갖고 "경찰이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 상황속보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통상 30분 단위로 작성하는 '상황속보'가 유독 백 선생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간 시간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본에 따르면 당시 16시 45분에 작성해야 하는 13보 상황속보부터 18보까지가 누락돼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시간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18시 56분과 병원에 실려간 초기라 백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속보로 보인다"며 "경찰이 이 시간 상황속보만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걸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그동안 백씨가 쓰러진 사실을 몰라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계속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혀왔었다. 백씨가 쓰러지기 전후 경찰의 상황속보가 남아있다면 경찰의 상황 인지여부를 알 수 있다.

야당간사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이마저도 처음에는 작성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김영진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경찰의 고의적인 은

폐시도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몰고가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주요 상황 시 정보상황속보를 작성하지만 '견문수집 처리규칙'에 의거해 열람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고의로 누락·은폐했다고 주장한 상황속보는 이미 내부 규칙에 따라 파기하고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백씨 사건에 애도를 표했다. 백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애도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청장은 또 "추후 여야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조문을 가주셨으면 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여야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영호 더민주 의원은 "백남기씨 사건이 왜 이렇게 확대됐다고 보는가. 이유는 경찰에 있다고 본다"며 "경찰 수뇌부가 가서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선조했을 때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부검영장을 청구하면서 겁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고 질타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이 백씨가 쓰러질 당시 살수차가 시위대를 정조준하기 전 4초 가량 경고살

수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틀며 "저길 보라. 짙은 나옴고 끝난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백씨 부검 영장 집행시한이 10월 25일까지인데 계속 유족과 합의를 하겠냐" 물었고, 이 청장은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총경 이상 경찰 간부 자체들의 의경 복무율이 절반이 넘는 데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총경 이상 고위 경찰간부 자체 중 '꿀보직'에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의경 입대율이 26대 1인데, 경찰고위직은 2대 1이다. 이게 우연이면 통계학이 필요 없다. 기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남춘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 자신이 인사검증을 하는 경찰에 권력자의 아들이 와서 근무하고, 그것

도 가장 선호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 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면서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의경에 가고 싶어도 6%의 확률인데 총경 자체의 53%가 의경으로 근무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냐"고 따졌다.

이 청장은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면서도 "추첨으로 한 것은 맞다. 일단 자체 확인을 거쳐 감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 정도 데이터라면 의혹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청장은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불산·울산·제주 등 지역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와 관련,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예비비 추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chacha@news1.kr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백남기 특검안 공방...여야 '본회의 직행' 놓고 힘겨루기 개시

與 "법사위 거쳐야" vs 野 "본회의로 바로 가야"

(서울=뉴스1) 김현, 김정률, 서미선 기자 = 여야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여야는 특히 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요구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며 "곧바로 본회의의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야당의 엉뚱한 꾀변이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절차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이후 애도 부족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로 가는 게 맞다"고 맞섰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 요구안은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법사위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사무처가 대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법사위에서 처리할지 양쪽을 다 추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는 (특검 요구안이) 본회의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쪽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만, 새누리당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정치적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다.

박 원내수석은 "법위에 정치적 합의가 있다. 새누리당과 잘 합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원내수석 역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기다려 보고 협상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특검 요구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될지는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90일 동안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법사위 논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요구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면)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사위의 구성은 저희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의 인원수가 5분의 3에서 한 명 부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농민 백남기씨 사태와 관련해 상설 특검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살/돼지 불고기/참양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짜장/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리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황태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짜장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90-95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톤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CJ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계약 해지 공고

CJ 대한통운에서 MA지역 위탁 운영중인 BOSTON 대리점을
아래와 같이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 래 -

해지 일자: 2016년 10월 03일
업소명: KOREA EXPRESS BOSTON INC
(CJ 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대표자: 정 대 훈

2016년 10월 03일 이후 이사물 관련 문의는 CJ 대한통운
미국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TEL: 201.643.1043 / 1045 / 1049
E-MAIL: ms.cho@cj.net
ss.shim@cj.net
ea.kim@cj.net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우병우 · 이석수 수사'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법사위 증인으로

13일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윤 팀장 선정

(서울=뉴스1) 서승희, 이정우 기자 = 국회 법사위위원회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5일 국회 법사회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특별수사팀장을 추가로 선정했다. 윤 특별수사팀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여야가 국정정국 주도권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특별수사팀장이 국감 현장에 나올 경우 관련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청와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우 수석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의혹 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 수석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song65@news1.kr



'우병우 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뜨거워지는 우병우 증인 출석... 與 기류 변화 감지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기류변화가 감지되면서 향후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처가 강남 땅 거래 및 아들 병역 혜택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우 수석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관행상 국감증인으로 나서지 않던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감 과행 기간 중 "야당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협력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문제는 국감과행 기간과 국감 정상화가 된 현재 여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이유로 국감에 복귀했지 당초 요구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야당의 공식적 사과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의 감정의 골이 아직 깊은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무리해서 우 수석의 출석을 강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또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에도 국회로서는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운영위 소속 여당 의원은 5

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여야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다시 태도를 바꿀지 등은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통상 국감에 안나왔는데... 시간이 남아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밝히는 등 우 수석의 출석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회 운영위 과행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 "지난번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기 의원은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떳떳하다며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 앞에서 의원들과 당당하게 토론해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우 수석이 스스로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운영위에 나와 떳떳하고 당당하게 (증언)하는게 맞지 않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 수석 불출석 경우와 관련 "불출석 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된다. 또 정치공세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K타워사업... 與 "정치공세" vs 野 "靑연루 삼척동자도 알아"

국회 국토위, 'K타워 사업' 청와대-미르재단 관련성 공방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연관될 수 있는 'K타워' 사업을 두고 5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한국과 이란이 추진하는 K타워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타워사업은 이란에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이란방문 당시 MOU가 체결돼 현재 부지를 물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은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여당은 미르재단의 사업참여 정당성을 부각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K타워사업 MOU 내용에 '미르'가 포함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문화예술 전문법인이 939개나 있는데 아무 등록도 안돼 있는데 명함 한장 받고 이름도 모르는 분한테 (사업을) 맡긴 게 말이 되느냐. 모든 문화·예술단체를 다 제외하고 단지 전경련이 출자했다는 이유로 미르재단을 신뢰했다는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LH공사측이 미르재단은 문화 분야 관련 컨설팅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성이 없는 LH가 16개 대기업이 출연한 미르재단을 활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이어 "한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간재단이 못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순방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재들이 동원되었다"고 거들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태풍 영향권 국민들이 국감 현장을 TV 중계로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들 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무엇이 중한디' 라는 영화 대사와 같은 한탄을 할 것"이라며 야당의 계속된 공세를 비판했다. playingio@news1.kr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신선을 넘어 전설을 지어는 뉴스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치로 (Kyochoro)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치로) 847-381-4112 달라스 (News Korea) 972-247-9111 샌안토니오 (크리안 마켓) 210-445-1536 엘파소 (아리랑 마켓) 209-756-1743
- 동부** 애틀랜타 (SNC Tech LLC) 678-584-9514 오하이오 펜실 (주간필라) 267-730-7773 버지니아 (NAU Computer) 709-942-5822
보스톤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치로 (Kyochoro) 917-685-955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치로) 604-420-1088

성당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구) Inboston
617.982.7118

입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쿠폰을 오려서
제출해 주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I.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

617.982.7118

(배달이 올때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복귀 앞둔 브래디, 불타오르고 있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팀 브래디가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마치고 복귀한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의 다음 상대인 브라운스와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팀 훈련에 참여했다.

패트리어츠는 브래디가 없는 4주 동안 3승 1패를 기록했다. 브래디가 없이도 AFC 동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최근 수년 간 그랬듯 패트리어츠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당연시 되고 있다.

브래디가 없이도 백업 쿼터백이 잘 버텼고, 수비팀과 스페셜팀의 활약 덕에 패트리어츠는 3승 1패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실상부 NFL 최고의 쿼터백인 브래디가 합류한다면 패트리어츠는 훨씬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될 수밖에 없다.

장장 623일 동안 진행되었던 디플릿 게이트는 올해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 처분과 함께 막을 내렸다. NFL 선수 노조가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NFL 역사상 가장 큰 소송 건이었던 디플릿게이트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브래디는 NFL의 징계를 받는 동안 패트리어츠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4주

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던 것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브래디는 복귀를 앞두고 17년 전 NFL에 데뷔할 때만큼 흥분되고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NBC에서 풋볼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과거 패트리어츠의 스타 수비수 로드니 해리슨은 인터뷰에서 브래디와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해리슨이 아침 일찍(오전 6시 40분) 패트리어츠 훈련장에 나왔더니 이미 브래디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다. 브래디는 “좋은 오후야(Good afternoon)” 라고 인사를 하며 해리슨을 맞았다.

다음날 해리슨이 10분 일찍 6시 30분에 왔더니 브래디는 이미 운동을 하며 마찬가지로 “좋은 오후야” 라고 인사를 했다. 해리슨은 계속해서 조금씩 일찍 나왔지만 브래디가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6시에 패트리어츠 연습실에 온 해리슨은 브래디에게 자기는 더 일찍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브래디는 풋볼을 사랑하고 45세가 될 때까지 현역에서 뛰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미 39세인 브래디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저녁 8시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30분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적어도 풋볼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팀 브래디가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마치고 경기에 복귀한다

에 관해서 브래디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벽을 추구한다.

NFL 역사에서 40대에 현역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는 18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단 2명만이 40대에 실제로 풋볼 경기에 출전했다. 2009년

에 브렛 파브르가 40세의 나이로 경기를 했고, 1997년에 41세였던 워렌 문이 풋볼 경기에 출전했다.

브래디의 나이는 이미 NFL 최고령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단 한 경기라도 출전이 보장된 경기

는 없다. 그런데 NFL은 브래디에게서 소중한 4경기를 빼앗아 간 것이다. 브래디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올해 남은 12경기에서 브래디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jsi@bostonkorea.com

WBC 1차 엔트리 발표... 박병호 · 추신수 발탁, 오승환 제외

50명 중 해외파 6명 포함
'성공적 데뷔시즌' 오승환, 8일 귀국

(서울=뉴스1) 이재상, 권혁준 기자 = 2017 WBC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등 해외파가 대거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빠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KBO 사무실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2017 WBC에 출전할 50명의 엔트리를 확정했다. KBO는 예비 엔트리 명단을 7일 WBC조직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해외파 중 오승환은 결국 제외됐다. 오승환은 지난해 임창용(KIA) 등과 함께 해외원정도박 과문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KBO는 오승환에게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따라 KBO리그에 복귀할 경우 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WBC 지휘봉을 잡은 김인식 기술위원장은 오승환의 합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결국 포기했

다. 투수로는 신인상이 유력한 신재영(넥센)을 비롯해 지바 롯데에서 뛰었던 우완 이대은, 구원 1위인 김세현(넥센) 등이 포함됐고, 정우람(한화), 김광현, 박희수(SK), 양현종(KIA) 등도 이름을 올렸다.

포수로는 양의지(두산), 강민호(롯데) 등이 뽑혔고 1루수에 김태균(한화),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 박병호가 발탁됐다.

야수 중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 등이 대거 선발됐다.

아울러 2017 WBC에 나설 코칭스태프도 최종 확정됐다. 김인식 감독과 함께 선동열 전 KIA 감독과 송진우 KBS N 해설위원이 투수코치로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 타격코치로 선임됐다. 배터리 코치에는 김광수(한화), 김평호(삼성) 코치 등이 뽑혔다.

한편, 예비 엔트리는 내년 3월 대회가 열리는 최종 엔트리 발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 엔트리 발표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빅리그 진출 첫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오승환이 귀국한다.

오승환의 매니지먼트사인 '스포츠 인텔리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전스'는 오승환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와 일본리그에서 최고의 마무리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올 시즌을 앞두고 2년간 최대 1100만달러의 금액으로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했다.

오승환은 올 시즌 6승3패 19세이브 14홀드와 평균자책점 1.92, 탈삼진 103개 등으로 맹

활약했다. 시즌 초반에는 셋업맨의 임무를 맡았지만 중반 이후에는 팀의 마무리 자리를 꿰차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오승환은 귀국 직후 공항 입국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웨라톤 팰라스 강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Epiphany Parish of Corpus Christi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정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병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 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행 9:31)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부설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7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Hwang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JEONGIL CHURCH

담당 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R.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경도인 공부	오전 4시
목요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2404
www.jeongil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송년회: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연합교회: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0.4488
http://wukcc.org

담당목사: 김현터
817.73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신 말씀 배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주님께 사모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질문, 토론, 안내, 사명, 헌신, 부활을 위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영년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경쟁력 **이선호**
781.266.7245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

REVELATION TODAY

새 날이 밝아온다

성경 예언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며, 다가오고 있는 시구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언세미나는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단 하루도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1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예언서, 열어야 하나 열어야 하나?

Opening Night
마사추세츠에 생
예언서의 연구회
필요한지, 과연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
속 예언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준다.

2 10월 17일 화요일

예언된 유럽의 운명

고대 바빌론과, 로마 제국, 유럽의 역사까지 이어 예언된 2500년의 역사를 알아본다.

3 10월 18일 수요일

작은 뱀,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7장이 말하는 로마 제국 이후의 디아블로인 유럽의 역사, 기술로 풀려나
진실이 밝혀진다.

계속되는 세미나 연재들:

- G2는 어디, 예언된 미얀마
- 미국의 부, 베리인인가?
- 이미것은 전쟁
- 세천사가 전하는 잊힌된 복음


Coming to you LIVE in Stoneham


시간 October 16-22, Nightly at 7:30 p.m.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무료 입장

매일 밤 흥미진진한 세미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JOHN BRADSHAW
It Is Written 텔레비전의 감사이신 John Bradshaw 복사는 G2 대륙에서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금껏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JAMES SONG
송영우 목사는 오랫동안 다국어로 요한 계시록의 예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동안 다국어로 요한 계시록의 중요 예언들을 쉽고 분명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RevelationToday.com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식당 호스티스와 호스트 경험자 구함.^{10/14}
파티타임 & 풀타임, 쿠킹 Help
T. 781-249-5838

벨몬트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10/21}
T. 617-631-4915, 617-484-6062

뉴튼. 입주나 출퇴근 하면서 집안 살림 하실 분. 맞벌이 부부와 중학생, 대학생, 개한마리 T. 617-899-4959

보스톤에 있는 미용실 매매합니다.^{10/28}
좋은 장소, 가격 협상 가능.
T. 617-818-5596

세탁소에서 프레스 하실분 구합니다.^{10/21}
T. 617-955-793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8/26}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훌륭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료를 더하는 최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전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회발전기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회발전기성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3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구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악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로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유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애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승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역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경성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키아어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	

밤하늘의 스타와 오두막집의 호롱불

유승원 목사 (2016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연합부흥회 강사)
부흥회 일시/장소: 10월14-15일 7:30 PM, 16일 6:30 PM / 성요한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의 아수라장에 자신을 던집니다. 한국의 슈퍼스타 K 지원자 수가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생명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의 스타 열망, 그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한 해 제가 섬기던 교회는 '소명'(召命)을 중점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발견한 소명을 추구하고, 그 소명 안에서 섬기는 보람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소명(召命)을 말하면 거창하게 '큰일'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크게 쓰임'을 받아야만 소명 축에 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에도 '큰 종이 되게' 해 달라거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 달라는 식의 찬란한 수사(修辭)가 습관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스타'가 되어야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종종 목사들조차 소명을 '슈퍼스타' 의식에 결부시키는 것 같습니다. 각양 대중 미디어와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소위 슈퍼스타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저명한 달변의 강사들, 센세이셔널한 간증거리로 가득찬 능력의 종들이 안방과 데스크에서 그리고 들고 다니는 각양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스타들이 되어 반짝거립니다. 개중에는 자신을 그 스타의 반열에 올

려놓고 싶어 온갖 애를 다 쓰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여 스타로 세우는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가 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타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올려다면서 은혜를 느끼게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입니다. 먼 하늘에 떠 있어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못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바라봅니다.

반면 우리는 오두막을 지키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빛을 내는 등불입니다. 길을 밝히기에는 너무 흐리고 약하게 부는 바람에도 쉽게 꺼집니다. 그냥 오두막집 선반에 놔두고 기름을 잘 공급하여 심지를 새로 갈아주면 한 평생 집안을 밝히는 아름답게 초라한 구실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세상 전체를 밝히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냥 집안을 밝힐 뿐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늘에 떠있는 스타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는 오두막 안의 거실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나다니는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을 선망하고 이상화합니다. 별은 그렇게 아름다운 전시용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안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약해서 길쭉까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호롱불이 밝힙니다. 소명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선반 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스타의 반짝임이 아니라 오두막집 선반 위에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밑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 5:15).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별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사실 그냥 뜨겁고 아무 쓸데없는 가스 덩어리인 경우가 많음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스타들에게 속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영광만을 드러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스타들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마 6:2).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두막을 밝히는 호롱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심초사 살피십니다(사 42:3).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 호롱불을 알아주시며 상급으로 갱아주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스타들보다는 가까이서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풍,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외상/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행동 및 척추측만 교정

- 가원기법 특별**
- 카이로프랙틱 수법
 - 정밀 척추 정렬 (X-ray, MRI)
 - 7월18일 - 19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후쿠이치,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김명민X변요한, '하루' 크랭크업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김명민과 변요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영화 '하루'(가제)가 3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함께 출연해 환상의 호흡을 과시한 김명민과 변요한은 지난 달 29일 '하루' 촬영을 마쳤다.

'하루'는 사고로 딸을 잃은 한 남자의 하루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딸을 되살리기 위해 하루에 얽힌 비밀을 추적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날 인천대교에서 진행된 촬영은 준영(김명민 분)이 딸 은정(조은형 분)의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자동차 액션 장면으로, 김명민은 딸을 지키려는 아빠의 애절한 심정이 느껴지는 감정 연기부터 액션 연기까지 훌륭히 소화해내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현장에는 당일 촬영이 없던 변요한도 깜짝 방문해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3개월간 끈끈한 팀워크로 함께 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은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촬영을 마친 기쁨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다.

촬영을 마친 김명민은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도 남지만, 한 편으로는 모두 끝났다는 생각에 후련하다. 올 여름 더운 날씨 탓에 모두들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상자 없이 무사히 끝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마지막 촬영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변요한은 "마지막 날까지 비를 맞으며 고된 장면을 촬영해야 했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틸감을 느끼면서 몰입할 수 있는 영화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uu84@news1.kr



'럭키', 유해진 원톱 주연 '걱정은 NO'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럭키'는 배우 유해진이 원톱 주연으로 나선 영화다. 멀티캐스팅 영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분명히 보기 드문 캐스팅이다. 그러나 허전함을 느끼기엔 유해진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하다. 다양한 표정 연기, 코믹과 진지함을 오가는 섬세한 표현으로 스크린을 휘젓는다.

'럭키'는 성공률 100%, 완벽한 카리스마의 킬러가 목욕탕 키(Key) 때문에 무명배우로 운명이 바뀌면서 펼쳐지는 초특급 반전 코미디 영화다. 1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유해진의 활약에 웃지 않을 재간이 없다.

영화는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큼 누아르부터 코미디, 드라마,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의 향연이 펼쳐진다. 물론 이는 코미디 액션으로 통합된다. 화려한 손기술로 김밥을 써는 유해진의 모습은 예고편부터 빵빵 터지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럭키'의 깨알 재미는 유해진의 반려견 겨울이, 우정출연한 이동휘·전혜빈의 열연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해진이 촬영장에 데리고 갔던 겨울이는 즉흥적 제안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됐고 극 중 톱스타인 이동휘의 반려견으로 등장한다.

uu84@news1.kr



"팀 버튼의 진심"...'페레그린'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팀 버튼의 4년 만의 미스터리 판타지 연출작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 국내에서 전세계 59개국 중 흥행 1위를 석권한 데 이어 '아수라'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런 흥행 돌풍이 가능했던 비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팀 버튼이 현 시대에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할아버지의 죽음의 단서를 쫓던 중 시간의 문을 통과한 제이크가 미스 페레그린과 그녀의 보호 아래 무한 반복되는 하루를 사는 특별한 능력의 아이들을 만나며 놀라운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판타지 영화다.

개봉과 동시에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어바웃 타임' 오프닝 스코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개봉 첫 주 거친 남성 누아르 '아수라'를 누르고 국내 박스오피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흥행 1위를 기록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개봉 6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광풍을 일으킨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팀 버튼 감독의 최고 흥행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0일)와 입소문 열풍에 힘입어 흥행을 이어간 '킹스맨'(8일), '메이즈 러너'(8일), '어바웃 타임'(9일)을 뛰어넘은 흥행 속도로 장기 흥행을 예

고했다. 이런 흥행 돌풍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웃사이더에 대한 팀 버튼 감독의 따뜻한 시선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팀 버튼 감독은 이상한 아이들을 통해 남과 다른 것은 감춰야 할 단점이 아닌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들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려는 할로 게스트와 특별함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성 세대에 맞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성장의 과정은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이처럼 미장센과 비주얼, 독특한 상상력에 있어 독보적이었던 팀 버튼 감독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해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영화들의 잔혹해진 묘사와 높아지는 폭력 수위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던 관객들에게 팀 버튼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세계와 판타지 속 캐릭터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지지를 얻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9월 26일 ~ 2016년 10월 2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6.2%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3.4%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0.7%
4	KBS2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20.4%
5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20.3%
6	KBS1	KBS9시뉴스	16.9%
7	SBS	정글의법칙몽골	14.3%
8	MBC	무한도전	14.0%
9	MBC	일밤2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2)	13.3%
10	KBS2	해피선데이	12.8%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4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5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6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02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3	숨	박효신
04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5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레드벨벳
06	Dancing King	유재석, EXO
07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08	목요일 밤 (Feat. 빈지노)	어반자카파
09	휘파람	BLACKPINK
10	If You	에일리

숫자 퍼즐 (Sudoku)

				4				
		5	8	6		4		7
4	9		5				6	3
	3					8		
9			3		1			2
		7					3	
5	2				6		7	8
7		6		1	5	3		
			7					

10월 9일 - 10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p> <p>●운수: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취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되겠습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애정: 잘 보이거나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소띠 최선의 결과가</p> <p>●운수: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맘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9, 14일 길일. 13, 15일 주의.</p>	<p>범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운수: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결혼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토끼띠 스스로 해결하려고</p> <p>●운수:처음부터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금전:피해를 막으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정: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3일 길일. 9, 15일 주의.</p>	<p>용띠 뜻밖의 행운이</p> <p>●운수: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전: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잘 어울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뱀띠 이제야 빛을 발하게</p> <p>●운수: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애정: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5일 길일. 9, 11일 주의.</p>
<p>말띠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p> <p>●운수: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양띠 지레짐작하지 말고</p> <p>●운수: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 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원숭이띠 체계를 세워서</p> <p>●운수: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금전:체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자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관참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닭띠 미운 정 고운 정이</p> <p>●운수:벼르고 베투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자신이 세워둔 계획이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부딪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애정:자주 만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개띠 좋은 씨앗을 심어야</p> <p>●운수: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전: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는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애정:한쪽은 자꾸 감추려하고 다른 한쪽은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돼지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p> <p>●운수: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자식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금전: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사실대로 말하면 농칠까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젝스키스, 16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타블로가 쓴 '세 단어'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젝스키스가 16년 만에 선보이는 신곡은 '세 단어'였다.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젝스키스의 신곡이 '세 단어'임을 공식 발표했다.

'세 단어'는 에픽하이 타블로 그리고 PK와 DEE.P로 이뤄진 YG프로듀서팀 퓨처바운스가 프로듀싱한 곡이다. 지난 2000년젝스키스가 고별 앨범을 발표한 후 16년 만에 발표하는 역사적인 신곡인 셈이다.

'세 단어'는 이별을 겪은 후 어렵게 다시 만난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사랑 노래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여기', '우리' 이 세 단어만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멀어지지 말자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

16년이라는 오랜 공백기 끝에 다시 팬들 앞에 서게 된젝스키스의 상황과도 맞물리는 내용이라 더욱 의미 있고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젝스키스는 지난달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던 단독 콘서트에서 '세 단어'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당시 많은 팬들이 눈

물을 흘리며 몽글한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호응을 보였다.
nahee126@news1.kr



'주간아이돌' 심장이 돌아왔다 정형돈 본격 컴백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방송인 정형돈이 '주간아이돌'에 돌아왔다.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 측은 지난 3일 공식 SNS에 "10개월의 길고 긴 기다림. '주간아이돌'의 엑기스, '주간아이돌'의 머리 가슴 배 심장 콩팥 말초신경 기타 등등 도니 컴백"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컴백한 정형돈이 휴대폰과 '주간아이돌' 포즈를 취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정형돈은 환한 미소로 한층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날 정형돈의 복귀는 걸그룹 에이핑크가 함께할 전망이다. '주간아이돌' 측은 "도니 삼촌을 반기러 달려온 정수리 요정 에이핑크. 에이핑크를 반기는 뽕망치"라는 설명을 덧붙여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star@news1.kr

'무한도전' 측 "19일 러시아 출국? 셋째주 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MBC '무한도전' 측이 러시아 출국 일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 측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1스타에 "현재로선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셋째주로 출국 일

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무한도전' 팀이 오는 18일과 19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태프들이 속한 선발대는 오는 18일에, 멤버들은 오는 19일에 각각 출국한다.

'무한도전'은 10주년 5대 기획 중 하나로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계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무한도전' 팀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무중력 비행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 call: s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9월 5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옥중화
2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SBS	사랑이 오네요
4	KBS	여자의 비밀
5	SBS	당신은 선물
6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7	MBC	좋은사람
8	MBC	불어라 미풍아
9	MBC	다시시작해
10	KBS	별난가족

티보플레이 9월 5째주 신규 방송

1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2	CJ	한식대첩 3

티보플레이 9월 5째주 최신 영화

1	고산자 대동여지도	차승원, 유준상
1	그랜드 파더	박근형, 정진영

"고산자, 연기 인생 포인트"...차승원, 김정호가 되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차승원이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통해 완벽하게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실존 인물인 김정호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했지만, 역할에 대한 진심과 진정성으로 뜨거운 감동을 안겼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시대와 권력에 맞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동여지도를 탄생시킨 지도꾼 김정호(차승원 분)의 감춰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차승원이 백성을 위해 완벽한 지도를 꿈꾼 지도꾼 김정호 역을 맡았고, 유준상이 흥선 대원군 역으로 등장한다.

차승원은 먼저 김정호를 연기했던 지난 날을 돌아봤다. 그는 "김정호 선생님에 대해 유추해보고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다. 과연 이런 시도를 무슨 생각으로 했을지 생각해 봤는데,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더라. 엄청난 분을 어깨에 지고 연기하게 됐다"며 "만분의 1이라도 쫓아갔을까 하는 생각에 겹쳐해지고 겸손해진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강우석 감독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작품이었다. 강우석 감독은 "연출을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하자마자 후회를 엄청나게 했다"며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었다. 결심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렸다. 꼭 해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의 삶 때문이었다. 팍팍한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연출을 결심한 이유를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 aluem_chang@news1.kr



박근형, 까마득한 후배 감독을 울린 까닭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박근형이 노장의 연기 투혼으로 이서 감독을 울렸다.

이서 감독은 "연출자로서 배우가 상받는 영화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감사드린다"며 "70대 후반의 노배우인 선생님이 이 영화를 위해서 살을 찌우셨다. 배우가 살을 찌우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극중 버스 기사역할을 위해 버스 운전면허증을 획득해 오셨다. 또 30도가 넘는 폭염에 두번이나 촬영 도중 쓰러지셨지만, 바로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촬영장으로 돌아오셔서 나머지 촬영을 하셨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왔다"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영화하는 후배로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랜드파더'는 젊은 시절 베트남 참전용사로 활약했지만 영광을 뒤로 한 채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던 노장이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다. 또한 마지막 남은 혈육인 손녀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독한 사투를 준비하는 액션노와라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stand, TBO

이정선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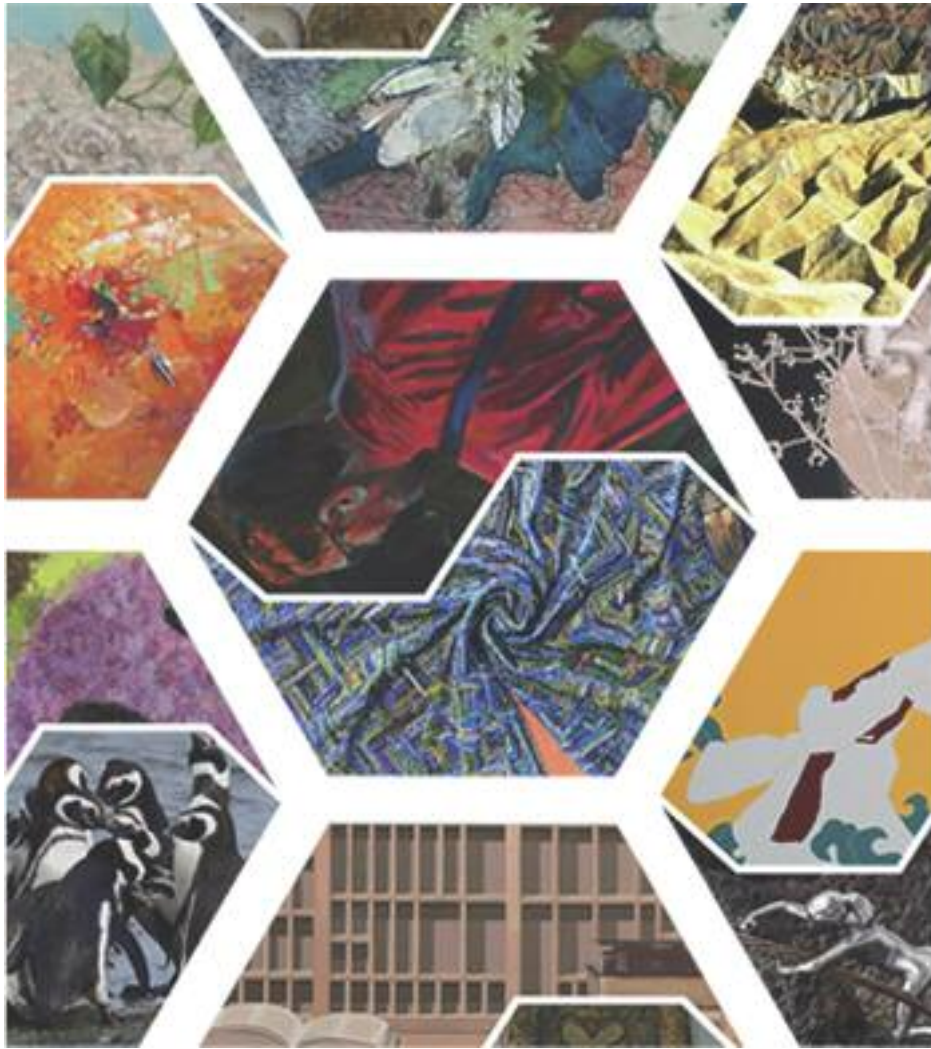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제 4회 한미예술협회 미술전



10월 1일 - 15일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리셉션: 10월 8일(토) 오후 2-4
 info@kcsBoston.org; 781-367-5993

전시 작가

강달래	김사울	김수희
김영숙	김영아	김희정
박순득	박혜영	성온경
유수례	이재옥	신영
조미애	지영신	차원재
최혜경	한승희	허선희
허정	황지영	

제 5 회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초대합니다



등록: www.kcsBoston.org (\$100 pp)
 문의: 781-367-5993; info@kcsBoston.org
 미술품 Silent Auction, 재즈 공연, Raffle



10월 22일 (토) 오후 4시반
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reet, Wellesley, MA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무릎 꿇은 나무

문득 '소리와 공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소리는 귀에 울리는 울림이라면 어쩌면 공명은 마음에서 울리는 울림이라. 번잡한 도시에서 바빠 움직이는 발걸음과 소음에서 마주한 소리와 이른 새벽 고요한 숲에서 듣는 소리를 상상해 보라. 그렇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소리마저도 고요한 자리에 서면 움츠러들고 무슨 말(소리)을 해야 할지 망설임마저도 든다. 그것은 현대인의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리라 생각한다.

"로키산맥 해발 3,000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나무의 모습은 수도자들에게 고행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정표로 보이며, 신을 찾는 사람에게 위대한 신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

올린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바이올린 현에서 우러나오는 만가지 음색은 아마도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렸던 시간들의 공명일 것이다."

겨울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깊은 숲에 들면 나무들의 키가 작아지고 잎이 작아지고 있음을 말이다. 춥다추운 겨울의 흑한과 세찬 비바람의 한파를 견디며 묵묵히 제 생명을 지키는 나무들을 보면 참으로 감동하게 된다. 어디 산뿐일까. 화씨 110°F(섭씨 40°C)를 웃도는 무더운 열기 속 사막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방울 하나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생명의 존귀함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제 생명을 지키며 키우는 자연을 보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창조주의 손길을 본다.

이 세상에는 얼굴의 색깔과 모양만큼이나 삶의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는 각양각색이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이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던가. 주변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면 걱정근심 하나 없어 보이고 그들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더욱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진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와 나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일 것이다.

이렇듯 다 똑같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싶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들고 태어났느니 말았느니 하는 얘기가 있지 않던가. 물론 어느 출발점에서 시작했느냐가 물론 중요할 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놓인 지금의 환경이 어느 곳인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출발점이란 생각이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노력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그것보다 더 초라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간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간에 탓이란 끝이 없으며 삶에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내게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물질주의 현실에서 돈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돈으로 자식을 어찌 살 수 있으며, 돈으로 어찌 건강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곁에 건강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음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고 덮고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플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육체의 깨끗함(건강함)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그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이 삶에서 더욱 든든해지고 튼실해져 그 어떤 비바람과 한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삶의 약속인 까닭이다. 저 로키산맥 해발 3천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에서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한담객설閑談客說: I have a dream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내 아내와 사귀기 전이다. 모대학 영문과 졸업반 여학생을 소개받았다. 누구나 그러했듯이 저녁을 먹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저런 잡스런 이야기를 나눴다. 팝송이 화제에 오를 적에 여학생이 내게 물었다. '팝송의 가사가 이해하느냐?' 당돌하고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솔직하고 거침없이 대답해 줬다. '아니요' 귀에 들리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내 단호한 대답에 여학생은 더 이상 팝송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많은 팝송의 가사 뜻은 아직도 모른다. 음악은 이해가 아닌 감정이라 우긴다.

다방안은 담배연기는 자욱했다. 팝송가락이 튀어 올랐으니 귀청은 멍멍했다. 좁은 유리박스에 앉은 장발의 디제는 언제나 시끄러웠다. 나야 그닥 즐거워 하지 않았다. 좁은 탁자와 의자가 싫었고, 다방아가씨들의 눈총이 서먹했다. 무슨 맛인지 모를 커피도 달갑지 않았던 거다. 차라리 대포집에서 소주를 마시는게 내겐 더 안락했다. 그랬으니, 팝송을 알리가 없고 관심도 없었다. 팝송이 자주 내 귓전을 때렸으므로 다시 들으면 아, 귀에 익었다 싶은 거다. 대포집에선 팝송을 틀어 주지 않는다.

그 시절 즈음, 아바라는 그룹이 있었다. 어디서건 그들의 노래가 나왔다. 청량하다 할 것인가. 노래는 맑고 경쾌했다

. 아바의 곡들을 유튜브에서 찾아 다시 들었다. 귀기울여 들을 적에, 이제 조금은 들리는가 싶다. 가사가 들리는 건지, 뜻을 이해하는 건지 그걸 구별할 수는 없다. 대신 감흥은 사뭇 다른듯 싶다.

아바 그룹 노래 한구절이다. 'I have a dream' 이 제목이다. 가사는 평이한데, 곡이 붙으면 인상적이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다. 노래중에 천사를 믿는다는 구절에서 꿈이 하늘을 날아오를 듯 싶다. 이 노래 제목은 마틴루터 킹 목사의 연설 첫 대목이기도 하다. 꿈을 갖는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쉽지는 않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 believe in angel...

내 꿈은 무엇이었던가. 뭘 꿈꾸고 있었다. 지금 내 아이는 무슨 꿈을 갖고 있나? 분명 아이도 꿈이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I w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다. 말간 졸음이 몰려 올 적에, 노래 다시 들어야겠다. 얽은 잠결에 꿈을 꾸려나.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봐요'
(창세기 37:6, 공동번역)

에이츠의 시 구절이다. 내 스스로 번역했다. 지나간 사람의 모습과 옛일들이 꿈처럼 아득하다.

그대 늙어 벽난로 곁에서
졸음이 물려올 적에
이 책을 꺼내들고 천천히 읽으시라

한때나마 그대 눈에 꿈처럼 담겼던
부드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깊은 그림자를 떠올리시라.
(그대 늙었을 때, 윌리엄 버틀러 에이츠, 김화옥 번역)



법륜스님의 영상강좌
정도불교대학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해지는 길

2016년 가을 신입생 모집

영상강좌 내용

1학기: 실천적 불교사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부처님의 일생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2학기: 근본불교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 길)

불교변천사 (불교사, 사회/역사 변화와 불교의 변천)

특별 프로그램

환경/복지/통일 특강, 특강수련, 나누기수련, 기도 정진,
수행맛보기, 봉사활동 체험

교육기간 1년 과정 (45주)

개강일 2016년 10월

입학금 \$200

장소 27 Eldred St, Lexington, MA

문의 TEL: (617) 977-4227 / Email: bostonjungto@gmail.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3)

알카트라스 섬 점거사건 (계속)

한편 전설적 스타 운동선수인 짐 소프의 딸인 그레이스 소프(Grace Thorpe)는 Jane Fonda, Anthony Quinn, Marlon Brando, Jonathan Winters, Buffy Sainte-Marie and Dick Gregory 같은 유명 인사들로 하여금 알카트라스 섬을 방문케 하여 인디언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점거장기화에 필요한 물품공급에도 힘을 쏟았다. 소프는 발전기도 설치해 주고 응급환자 후송 서비스도 맡아서 했다. 정부는 점거활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전기공급도 끊고 전화선도 단절해 버렸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많은 빌딩들이 파괴되는 등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으로부터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인디언 운동가들은 1971년 6월 점거를 끝내고 섬을 떠났다. 알카트라스 섬 점거사건은 이후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인디언 권리 찾기를 위한 행동주의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섬을 방문하여 이날을 '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로 기념하고 있다. 같은 날 동부의 플리머스에서는 인디언들이 이날을 '애도일(National Day of Mourning)' 로 지정하여 행사를 열고 있다. 알카트라스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정

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분위기는 말살정책에서 부족주권 확립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0년 7월 8일 의회에 보낸 교서(message)에서 더 이상 말살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디언의 자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닉슨의 구두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인디언들은 다시 한 번 행동으로 그들의 요구조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1972년 11월 2일에 인디언국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깨진 조약의 길(Trail of Broken Treaties)과 인디언국 점거사건

1972년 AIM을 포함한 8개의 미국과 캐나다의 인디언 단체(American Indian Movement, the National Indian Brotherhood, the Native American Rights Fund, the National Indian Youth Council, the National American Indian Council, the National Council on Indian Work, National Indian Leadership Training, the American Indian Committee on Alcohol and Drug Abuse)가 연합하여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버스로 서해안을 출발하여 워싱턴을 향하여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렬의 길이는 6km가 넘었다고 한다. 그들은 오는 도중에 미니애폴리스에 들러

서 20개 조항의 요구사항을 작성했다. 요구사항의 요지는 과거에 체결된 조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디언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시위대는 대통령 선거일 전 주에 워싱턴에 도착하여 요구사항 20개 조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닉슨 행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시위대는 더 강력한 실행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월 9일 약 500명이 인디언국 사무실에 난입하여 점거하였다. 점거는 6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때 사무실 안에 있던 집기 비품과 보관 문서들이 크게 훼손되어 피해액이 7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운디드니 대치사태(Wounded Knee Incident)

1973년 2월 27일 AIM 회원과 라코타 인디언 약 200명이 지난 1890년 12월 29일에 수백명의 인디언들이 학살당한 파인릿지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운디드니를 점거하였다. 점거 목적은 두 가지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부족 대표인 Richard Wilson이 비리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반대파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둘째는 정부가 인디언과 체결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요구하였다. 점거 사건이 발생하자 FBI를 비롯한 경찰 인력과 장갑차까지 출동하여 일반인 출입저지선을 설치하였다. 인디언과 경찰이 모두 무장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전장터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가끔씩 총을 쏘는 교전도 벌어졌다. 4월에는 오글라라 인디언 한 명과 체로키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점거 사태는 71일간 지속된 후 5월 8일 상황이 종료되었다. 원주민의 봉기 현상이 미 전역에 생중계되었는데 라코타의 영웅 시팅볼과 크레이지호스의 후예를 자처한 환칠한 외모의 러셀 민즈 AIM의 대변인은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운디드니는 마을 전체가 크게 파괴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월슨이라는 부족 대표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으로서 사적인 군대조직을 만들어 반대파를 협박하고 심지어 살해도 저지르는 등 오글라라 부족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인물이었다. 그 몇 년 동안에 무려 60명이나 피살당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파인릿지 보호구역은 전국에서 살인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대체로 후세 사가들은 운디드니 점거사태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보다는 월슨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8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1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찬하여 말한다: 이화二花의 풍류(화랑도)는 신라의 청담이라(二花風流 鷄林清談). 영화로운 자식이 공주에게 장가들고, 금불이 와서 의지하니 약사여래라. 화랑의 소속이고 법사의 아버지이니, 위업을 떨치는 공족公族이여, 만세에 무궁하리라.

세계世系: 아버지는 위화랑이고(어머니는 준실이다) ... 아버지는 ... 손孫이다. ... 준명俊明의... 어머니는 자아紫我이니 곧 ... 문장을 ... 공은 그 맥을 이었다. ...]

김대문은 고조할아버지 이화랑의 가계와 업적을 정리한 후 다시 한번 선대의 위업을 기리고, 그의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매듭짓고 있는 대목이다. 첫 문장 '이화풍류 계림청담二花風流 鷄林清談' 은 이화랑이 살아온 족적을 아주 절묘하게 함축하였다. '화랑도의 수장 이화랑은 속세인이 쉽게 겪을 수 없는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신라인이다'. 그는 초대 화랑도의 풍월주인 위화랑의 아들로 태어났다(젊은 낭도들의 명칭도 위화랑의 이름에서 따와서 '화랑' 이라고 하였다). 이화랑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음률과 문장을 잘했음 뿐만 아니라 피부는 옥같고 미소짓는 눈은 꽃과 같

았다. 그래서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진흥왕의 모후 지소태후가 매우 총애하였다. 지소태후는 이화랑으로 하여금 자신의 딸들인 황화공주와 숙명공주 그리고 송화공주를 지도하게 하였다. 그 와중에서 숙명은 하라는 공부는 멀리하고 이화랑의 미모와 장부다운 늠름瀟灑한 기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하지만 지소태후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진골정통으로 인맥姻脈을 잇기 위하여 숙명을 동복인 진흥왕의 왕비로 들였다. 하지만 같은 지소태후의 아들과 딸인 진흥왕과 숙명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정숙태자가 태어났다. 숙명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화랑과 밀통을 하였다. 반면 이화랑의 입궁은 단순히 공주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 목적은 지소태후의 침신寢臣 역할이었다. 결국 이화랑과 숙명의 밀통은 발각되었고 그들은 왕후의 자리를 버리고 출궁하여 멀리 도망하였다. 머지않아 지소태후의 용서와 허락으로 그들은 결혼하였고 금불이 와서 의지한 약사여래불183) 로 불리는 해동의 으뜸가는 법사 원광을 낳았다. 풍월주의 지위와 원광법사의 아버지 그리고 숙명공주의 남편이기에 김대문은 고조할아버지 이화랑을 공족公族으로 칭했다. 공족은 왕족, 왕공王公

을 의미한다. "만세에 무궁하리라" 는 김대문의 기원처럼 원광법사의 명성과 그가 진평왕 재위시 귀산과 추항의 요청으로 준 다섯가지의 수신계 '세속오계' 는 당시의 화랑도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무도를 수련하는 모든 수련자들의 윤리적 지침과 실천이념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절은 이화랑의 세계世系인데 탈자가 많아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지금까지 화랑세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화랑의 아버지는 위화랑이다. 먼저 부계父系를 보면 위화랑의 아버지는 섬신공이며 어머니는 벽아부인이다. 섬신공의 아버지는 백흥공이고 어머니는 조리이다. 백흥공은 파호와 청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파호는 제17대 내물왕의 아들이다. 이화랑의 어머니는 준실이다. 모계쪽을 보면 준실의 아버지는 이훈이고 어머니는 준명이다. 제21대 비처왕(소지왕)이 큰아버지격이 되고, 어머니 준명은 제20대 자비왕의 딸이다. 준실은 처음에는 범흥왕(23대)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위화랑과 결혼해서 이화랑을 낳았다. 그리고 이화랑의 할머니 벽아부인은 처음에는 당시 신라의 변방이었던 날이군(현 경북 영주) 군관 파로의 부인

이었다. 소지왕이 날이군으로 500년에 순행을 할 때 파로가 자신의 어린 딸 벽화를 진상하였다. 너무 어려서 왕이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벽화는 당시 신라에서 최고의 미인이었다. 순시를 마치고 월성으로 돌아온 소지왕을 그녀를 잊지못해 몇차례 날이군으로 잠행을 하여 사랑을 나누다가, 동년 가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이때 어머니 벽아도 함께 와서 후궁이 되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소지왕이 죽으면서(죽음을 당하면서?) 지증왕이 등극했다. 그리고 벽화는 태자 김원종(후일 법흥왕)의 후궁이 되었고, 벽아는 섬신공의 처가 되었다. 아마도 이때 그녀는 30세 정도로 예상된다(소지왕과 벽화의 못다이룬 짧은 기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22년조에 상세하게 전한다).

183) 동방의 정유리세계의 부처이며 왼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의 질병과 재앙을 소멸해주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IT IS WRITTEN
PRESENTS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

REVELATION TODAY

새 날이 밝아온다

1

10월 16일 일요일



예언서, 덮어야 하나 열어야 하나?

2

10월 17일 월요일



예언된 유럽의 운명

3

10월 18일 화요일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등장

당신이 찾아 헤매던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2016년 10월 16일에 밝혀집니다.

계속되는 세미나 연재들:

- G2는 없다, 예언된 미합중국
- 짐승의 표, 베리칩인가?
-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Coming to you LIVE in

Stoneham

시간 October 16-22,
Nightly at 7:30 p.m.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무료 입장



RevelationToday.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國 (국)

“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Truly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whoever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 마태복음 11: 11.

지난 7월 말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태영호 공사에 한국 망명 2개월 만에 또 다시 중견간부에 탈북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고위 간부 한명이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 생활을 희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에 중앙일보에 의하면 중국 베이징 대표부에 소속된 북한 내각 보건성 출신 실세 간부 A 씨가 지난달 28일 부인, 딸과 함께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A 씨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 진료소와 간부용 남산 병원, 적십자 병원 등을 관장하는 보건성 1국에서 근무했으며, 김정은의 건강 관련 약품과 의료 장비 조달 도입 담당자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베이징의 경우 북한 특권층의 핵심 간부들이 근무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며, “북 외교의 심장”으로 알려진 베이징에서 탈북 망명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평양이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 이란다.

태영호 공사 탈북 사태후 해외체류 외교관과 주재원 가족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소환을 포함 특별대책을 실시 중인 상태에서도.

청와대에 정연국 대변인은 5일 소식을 접한 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측근이 탈북한 것인 만큼 크게 주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태영호 공사의 탈북 이후 북한의 전 해외공관에는 ‘탈북 비상령’이 떨어졌다” 며 “모든 주재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추가 탈북 사례가

나온 것은 김정은 정권의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외교의 심장부인 베이징 공관에서 탈북자가 나온 것은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대북소식통은 “지금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발각 뒤집혔다” 며 “모두 쉬쉬하지만 탈북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크게 퍼졌다” 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 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촉구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 10회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의 핵(核)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애문이 열리면 한반도에서는 우리뿐 만 아니라 720만 재외 동포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힘든 일만이 가중돼 자멸의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자 중심의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광두),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이하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경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 고 주장했다.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론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財界) 내부에서조차 “전경련 무용론” 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기업에서는 전경련이 재계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부담만 주고 있다. 재계 총수들은 갈수록 전경련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서 회장직(會長職)을 서로 피하고 회장 선임 때마다 인물난에 시달린다. 부회장으로 추천받은 큰 기업 오너들이 고사하기도 했다.

과거 전경련은 나라의 주요 현안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해 왔었다.

최종현 회장 때 금리인하론을 펼치며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했고 IMF 외환위기 때 김우중회장이 ‘500억 달러 무역흑자론’ 의 패러다임으로 관료그룹과 맞서기도 했었다.

정치자금 모금 창구가 되는 등 오점도 있었으나 시장경제 진영의 견인차나 싱크탱크 역할등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었다.

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사라져도 대한상의나 경총, 무역협회 등을 통해 재계(財界)의 고충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문제없었다. 미국의 AEI(미국기업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두뇌로 뒷받침할 수도 있다.

國국은 ①口:國의 옛 글자와 ②或:未定辭 미정사-아마 혹- 자와 합성돼 “나라 국” 자.

성경(聖經)은 바로 “이 나라, 즉 땅의 나라(地國:지국)과 (天國:천국), 말을 바꾸면 ① 육신이 살고 있는 地國과 이 세상을 떠난 후의 ②天國생활로 영생(永生)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실수로 영생활 수 있었던 에덴(Eden)동산에서 겨난 후 예수그리스도(Jesus Christ)의 “십자가 보혈” 로 다시 영

생을 회복 성경의 요한 계시록(Revelation) 이 영생을 확인해준다.

당초 하나님이 주신 에덴(Eden)에서의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되찾으신 천국(天國)과에 비교는 요한계시록 21: 1-27에 명백히 나타난다.

① 옛 하늘과 땅 → 새 하늘과 새 땅으로 ② 생명나무와 강(江은) 변함없고 ③ 아담과 하와(Adam&Eve) → 그리스도와 성도(Saints) ④ 사탄의 유혹 → 사탄의 멸망 ⑤ 저주의 선언 → 저주가 제거(除去)됨 ⑥ 죽음의 시작 → 죽음이 제거됨 ⑦ 상실된 낙원 → 되찾은 낙원 ⑧ 천사들의 출입금지 → 천사들 보호함...으로 바뀐 영원 천국(天國)의 재건(再建).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26.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에서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선언인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give you this testimony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 요한계시록 22:16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net, etc.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A NIGHT OF KOREAN SPIRITUAL MUSIC

BY KKM PROJECT

10월 8일 (토) 8 PM

St. John's Church in 자메이카 플레인

공연문의 : k.koreanmusic@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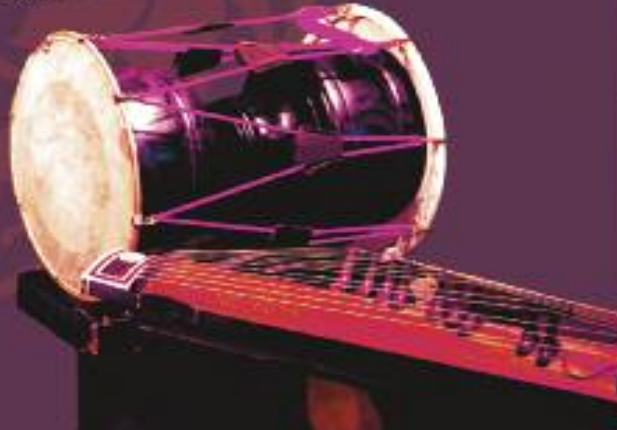
티켓 : Adult \$10, Students \$5

Featured by:
JP Concerts & Open Theatre Project

OTP

Sponsored by: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후원: 주 보스톤 총영사관



KKM PROJECT

다가오는 개천절을 맞아, 한국 영적음악의 밤 A Night of Korean Spiritual Music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례악, 무악, 굿 음악 등 한국의 영적음악에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전통적 사상이 음악적으로 서려있습니다.

이를 감각적으로 현대화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작품들이 다양하게 연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정보 및 티켓정보 :

Facebook에서 KKM Project 검색 혹은 광고 하단의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참여 아티스트

KKM 프로젝트 작곡, 피아노 홍재연
가야금 김도연

자유 콰르텟 보컬 정원미
가야금 김도연
피아노 Chris McCarthy
타악 Eli Cohen

피아니스트 Chase Mori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개인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0)

개별적인 주식투자 실패

투자는 좋은 곳에 투자하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 실패 대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때문입니다. 지난 25년간 실패로 이어지는 투자는 크게 나누어 1) 개별적인 회사 주식 투자, 2) 금융상품 투자(어뉴어티 등), 그리고 3) 뮤추얼 펀드 투자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머니쇼' 재정 칼럼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주식을 선별하는 주식 애널리스트는 주식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정도로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애널리스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구매하라고 한 애널리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경, 4/26/2016)) 회사 주식을 평가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그 회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 대박' 을 기대하며 특정한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합니다. 한국의 한진해운은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폭삭 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가 결국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영난으로 필자도 작은 피해

(?)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일 세대에게 재정계획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 편 한 편 쓴 글이 900편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독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배편으로 보내는 모든 운송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진해운에 한 펀드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한진해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우존스는 3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개 회사(2011년) 중 여러분이 Bank of America에 투자했다면 59% 손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햄버거를 한 번도 사서 먹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 McDonalds에 투자했다면 31% 수익입니다. 팝 즐리고 운동한 후 한잔의 맥주, 아이들이 자주 마시는 캔 음료수, 모두가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Alcoa 회사 주식을 샀으면 44% 손실입니다. 뚜렷한 신생상품이 없지만, IBM 회사 주식은 27% 증가했습니다. 독자분들은 어떤 이유로 어느 회사에 투자 결정을 합니까?

2012년 9월 발행인 중단된 스마트머니(SmartMoney)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잡지이며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잡지입니다. 매달 특정한 회사를 선정하여 주식전문가 한 명은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와 다른 한 명은 '팔아야 하는 이유' 6개를 각각 말합니다. 주식전문가들이 한 회사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 일반 투자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헤지 펀드(Hedge Fund)는 그야말로 큰 부자들만 투자하는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소위 투자 고수가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헤지 펀드도 수익률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까지 헤지 펀드의 수익률은 3%인데 이것은 주식시장(S&P500)의 수익률 절반도 되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브레넨 하워드(Brevan Howard)는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로 규모가 큰 투자회사입니다. 2년 전 자산이 \$42 Billion에서 현재 \$19.4 Billion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첫 6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만 \$3 Billion입니다. 지난 3년 연

속으로 투자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Investment Pull \$3 Billion From Brevan Howard Fund in First Half, WSJ, Aug. 16, 2016) 이처럼 주식전문가도 유망한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투자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한 이유는 투자 수익률은 물론 투자 위험성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S&P500 투자는 500개 회사 중에서 몇 개의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서는 안 되는 투자 3가지' 만 하지 않아도 제대로 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조만간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필자의 책 제목은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입니다.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되기 위한 과정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개인과 사회의 전쟁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재용자가 많은 소비자들은 도와주고 있을때, 프레디맥의 용자를 가진 손님들은 그 혜택을 최대한 볼수가 없었다. 오바마 재용자는 용자액수가 집의 가치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정부차원에서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용자를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정부의 요청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런데 Fannie Mae에 비해서 Freddie Mac은 조건도 까다롭고 규정이 복잡했다. 결국 Fannie Mae를 주택용자 투자자로 갖고 있는 소지자들은 대부분 재용자를 성공했는데 비해서 Freddie Mac의 투자 용자들은 성공률이 아주 낮았다. 같은 투자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최근의 뉴스기사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이유는 이데올로기(ideology) 였다. 모든 회사에는 소수의 상임이사 (Board of directors)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회사에서는 그들이 헌법재판관인 것이다. 그런데 Freddie

Mac상임 이사들 중에 2명이 극 자본주의 신봉자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중요시한다. 살아남 능력이 없는 기업, 개인, 법인은 자연도태되고 강한 기업, 법인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것이다. 즉 "나"의 사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파산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단순해서 필요하면 도움이 그림고, 잘 살고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혁명당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데모를 한가고 하니깐,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다. 나는 결코 왕비가 백성들을 놀리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백성들의 배고픔을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픈적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위한 기근제도를 설치할수 있을까? 나는 어릴적에 천식을 앓은 적이 있어서 숨을 편히 쉴수 있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안다. 늘 숨쉬는데 고통을 느낀적이 없는 사람은 나의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속에서 3분간만 숨 참고 있어봐요'라고 하면 1분도 안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극 사회주의도 권장 할만하지 않다. 어릴적 유럽에서 살면서 극 복지 국가의 폐단도 보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하기 보다는 실업수당으로 쉽게쉽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어린 나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였다.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생기면 꼭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금년말의 대통령 선거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아니다. 복지주의와 자본주의의 격돌이다. 복지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자본주의 표상인 도널드 트럼프는 두 사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와'개인'의 대결에 우리는 표를 던져야 한다.

나는 모든 시민들이 한 배를 탔다고 본다.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나 선장실에서 항해지도를 보고 여정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같은 배를 탄것이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항법사도, 선원도 다 죽는 것이다. 극 자본주의도 극 복지주의도 모두 바다속으로 빠뜨릴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늘 극단적인 방향만 향하려고 하는 것일까?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민주평화통일 안보강연

강사: 엄성준 총영사, 이성윤 교수



날짜: 10월15일 토요일
 시간: 오후5시30분
 장소: MIT Room #32-155
 주소: 32 Vassar St.
 Cambridge, MA 02139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
 *이성윤: 텡스대 플래처스쿨 교수

>> 이번 강연회는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Boston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잡다한 역사(1)

매칠 전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간의 1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칼럼을 계속 쓴다면 언젠가는 올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본선 후보들에 얽히고 설킨 정치사와 사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령 왜 남부의, 혹은 러스트 벨트의 가난한 백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을까,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원이었던 대학생 시절 선거를 도왔던 베리 골드워터는 누구였을까, 혹은 엇그제 같은 과거의 샌더스 돌풍은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

어쨌거나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지역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었고, 어느 정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별히 우세했었는지, 각 정당은 어떤 이슈를 쟁점화했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 정치가 훨씬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대선을 한 달 여 앞 둔 오늘, 지나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칼럼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긴 이유다.

만장 일치로 당선된 워싱턴과 먼로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는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초창기 미국의 대선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한 선출방식이었고, 선거인단이 각각 두 표씩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모든 선거인단은 조지워싱턴에게 한 표씩을 던졌고, 나머지 열 한 명 중 각기 다른 한명에게 또 다른 한 표를 행사했다. 조

지 워싱턴은 1792년 선거에서도 모든 주의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임기 말엽 세번째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장기 집권이 초래할 정치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1951년 비준을 받게 되는 수정 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헌법 22조 없이도 워싱턴의 선례 덕에 대통령 임기는 암묵적으로 2회 이내로 굳어져있었다. 1932년 초선에 성공해서 1944년 선거까지 무려 4선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까지는.

선거인단 득표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로 당선된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 '먼로 독트린'으로 유명한 제임스 먼로. 버지니아 상원의원 출신으로 민주 공화당 소속이었던 먼로는 전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재임시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s)이었다. 먼로의 초대 선거였던 1816년 대선에는 연방주의당(Federalist Party)에서 뉴욕 상원의원 출신 루퍼스 킹이 후보로 출마했지만, 먼로가 킹에게 압승을 거두었다. 매디슨 대통령 재임기 영국을 상대로 치른 1812년 전쟁의 여파로 '천영'의 성격이 강했던 연방주의당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던 탓이다. 급기야 먼로의 재선인 18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방주의당은 공식 후보를 선출할 수 없었다. 먼로는 선거인단표 231개의 선거인단 투표 중 228개를 획득하며 쉽게 재선에 성공

했다.

정당의 내부 분열과 대통령 선거

1817년 7월,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보스톤에 방문했을 당시, 과거 연방주의당의 기관지 성격이 짙었던 컬럼비아 센츨럴의 기자 벤자민 러셀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새 대통령을 기쁘게 맞이하는 보스톤 시민들을 보며 "화해의 시대(Era of Good Feelings)"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공화당의 적장자와 같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과거 연방주의당의 총본산과도 같았던 보스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후 '화해의 시대'는 1815년 무렵 시작된, 영미전쟁후의 강화된 국민주의(Nationalism)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표현이 되었다. 연방주의당-민주공화당이 대립하는 1차 정당시스템이 민주공화당 1당 체제로 전환되었던 것도 화해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징후였다.

하지만 1824년 선거는 그 '화해'에 이미 균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824년 선거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정당 지도부로 구성된 의회 코커스에서 지명된 윌리엄 크로우포드는 동부의 일부에서, (연방주의당이 배출한 유일한 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의 아들인 존 퀸시 애덤스는 북동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한 영미전쟁의 영웅인 앤드류 존슨은 남부와 서부에서, 헨리 클레이는 서부의 일

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 1824년 선거가 일명 "지역의 아들"들의 선거(favorite son's election)로 불리는 까닭이다. 후보가 난립하다보니 후보간의 비방도 난무했고,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대중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앤드류 잭슨과 2위를 차지한 존 퀸시 애덤스 간의 선거인단 표 차이는 불과 15표였고,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의 표는 여전히 대통령에 선출되기에 충분한 선거인단 득표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었다. 득표수 4위를 차지한 헨리 클레이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상황에서, 하원 의장 출신인 헨리 클레이가 애덤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실제 대통령은 득표수 2위였던 애덤스가 차지했다. 이 선거는 앤드류 잭슨 지지그룹이 민주당으로, 클레이와 애덤스 지지그룹이 휘그당의 전신인 국민 공화당(National Republican Party)으로 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824년 선거 이후에도, 정당 내부의 분열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쳐왔다. 가령 공화당 내의 계파 갈등이 비극을 초래한 1880년 선거,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새 당을 창당해 나가면서 민주당의 윌슨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1912년 선거, 민주당의 내분이 극에 달했던 1948년 선거와 1968년 선거 등. (다음 칼럼에 계속)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잘 나가는 푸드트럭(Food Truck)의 "나도 모르게 한 프랜차이즈 법 위반" 이야기

컵밥으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화 된 한국식 푸드트럭(Food Truck)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 미드타운에 위치한 고릴라 BBQ는 푸드트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푸드 네트워크(Food Network)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의 김치타코도 한국식 푸드트럭이라면 빠질 수 없는 인기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2014년 베스트 뉴욕 푸드트럭 어워드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했었습니다.

저희 고객도 뉴욕에서 꽤 잘 나가는 푸드트럭 사업자였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흑시모를 모방꾼에 대비하여 트레이드 마크 신청도 해 놓을 정도로 꼼꼼했고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보니 주변에서 서로 "나도 좀 같이 해 보자"하면서 제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 보고 싶어하는 사촌동생에게 트레이드 마크도 사용하게 하고 요리 비법과 운영 방법도 전수하는 대신 매년 가맹비 \$1,700정도 받기로 두 분이서 간단한 한국어 계약서를 썼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법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는 "큰 일"입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사촌 동생과 계약을 하기 전에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사업지역, 계약 파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했어야 합니다. 저희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방법과 주법을 어긴 셈이 되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수천 불에서 수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이름, 상표, 독특한 서비스 혹은 상품, 마케팅 노하우 등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2)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 가맹점은 그대가로 프

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분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셈이었고 고객과 사촌이 아무리 이것이 "단순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연방법과 주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인 셈입니다. 기존 관계에 보면 당사자간 "계약서(Contract)" 혹은 "합의서(Agreement)"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의 조건을 모두 갖춘 합의라면 프랜차이즈로 구별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제약을 가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주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수익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까지 나서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사이의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사업주의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사업의 형태 상 사업주가 매우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가맹점은 협상을 할 여지가 거의 없는 계약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은 양쪽의 파워 조절을 위해 계약서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계약 해지시 의무 사항 그리고 사업주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한국식 판단이 미국에서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잘 운영되는 자신의 사업체의 상표권, 운영방식, 서비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는 분명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대상이 친척이나 친구라도 어김없이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벌금을 막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프랜차이즈 법 규정에 대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투자상가 건물 매매가격 \$1.2M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9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관리,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9:00-9:30	단어 test	단어 test
9: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Critical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SAT Writing Class
4:00-6:00	TOEFL Class	S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